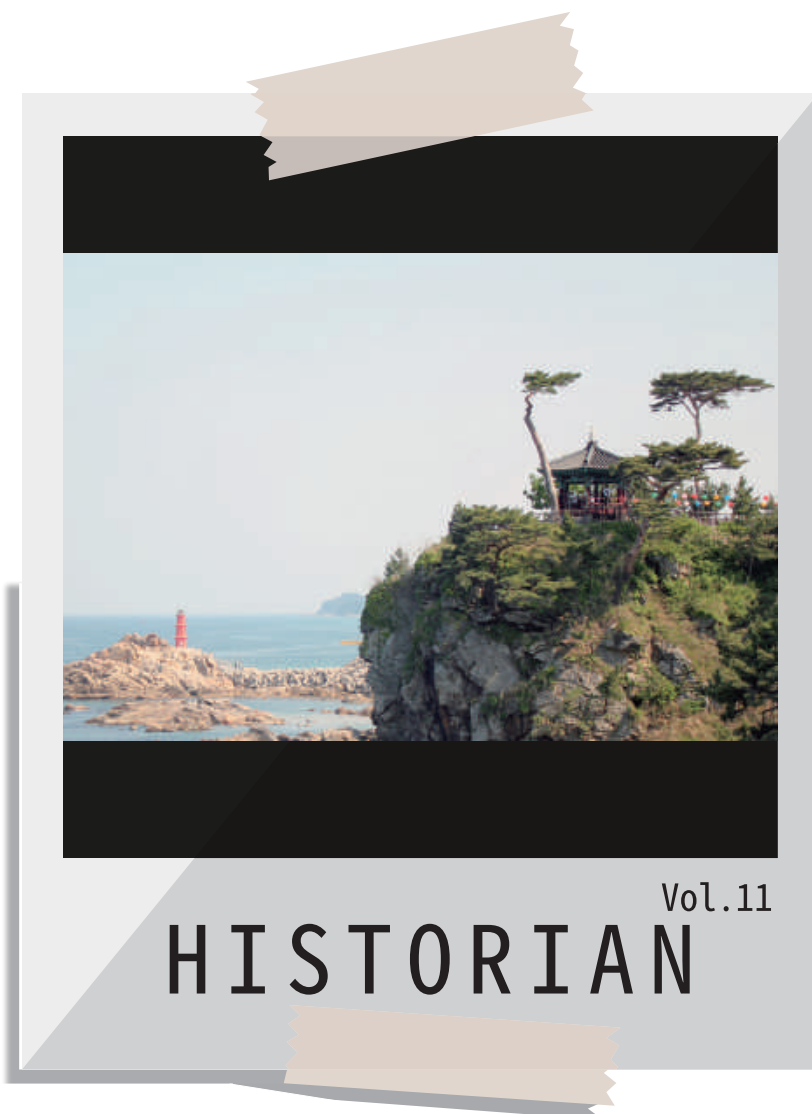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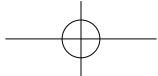


INHA UNIVERSITY

Vol.11

HISTOR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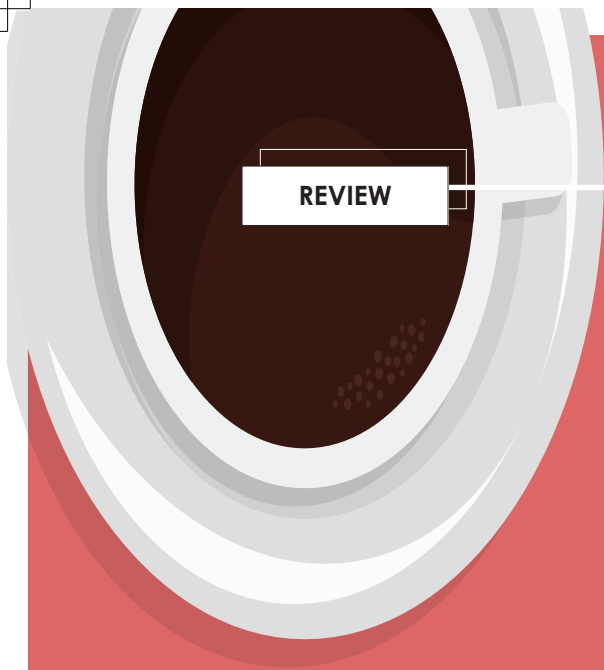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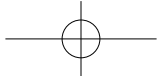


Histor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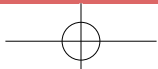
Vol.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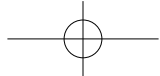


학과의 소리	학생회와 학회의 소리	02
답사의 추억	국내답사(강원도 일대)	10
	해외답사(동남아시아 배낭여행)-변규덕(대학원)	30
해외통신사	중국(동화대학교)-조율재(14)	44
논문을 마감하며	마침표와 쉼표-박종범(13)	49
	왜관 답사 주제 선정과 후기-조현철(13)	53
졸업생에게서 온 편지	경기일보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이승욱(11)	57
편집자주	유윤이 / 지수빈 / 정우혁 / 하재윤	59
조교 한마디	이동륜	60
장학제도	학과소식 / 장학제도	61



학생회와 학회의 목소리





올해도 사학과

15학번
환환희

(15)



43대 사학과 학생회장'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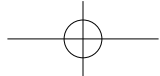
REVIEW



안녕하세요 43대 사학과 학생회장 15학번 환환희입니다. ‘올해도 사학과!’를 외치며 즐거웠던 2019년이 벌써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한 학기 동안 사학과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더운 여름 가운데 항상 건강하시고, 방학 때 하고자 마음먹은 크고 작은 목표들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학기는 제 대학 생활에 있어 가장 의미 있으면서, 빠르게 지나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학생회 활동을 주도하면서 준비했던 행사들이 하나둘씩 끝나고 나니 어느새 한 학기가 끝나, 이 글을 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과 생활에 경험이 부족한 저였기에 걱정도 많고, 실수도 있었지만 변함없는 응원과 신뢰 보내주신 사학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전 회장들과 다르게 학과 대표 자리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입대했고, 복학 이후에도 적극적인 학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 제가 사학과 회장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은 이수빈 학우와 더불어 사학과를 이끌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잘해 보겠다는 마음만 앞서서 나선 자리였기에 모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회장단들과 조교님께 많은 조언을 받으며, 학생회 일원들과 함께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갔습니다. 글을 쓰는 이 순간 앞선 시간들이 힘들었지만 잘 마무리했다는 뿌듯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생회 활동은 1월 1차 정모로 시작되었습니다. 5호관을 알지 못하는 19학번 신입생들을 위해 역 앞과 후문으로 데리러 가고, 준비했던 프로그램들과 뒤풀이를 즐겁게 마친 뒤에 다음 모임을 기약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2월에는 2차 정모, 수강 신청 설명회, 새로 배움터를 진행하며 19학번 신입생들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 배움터를 다녀온 날에는 과방 미화 작업으로 더럽혀진 벽지를 학생회와 신입생들이 함께 단장했습니다. 그리고 공약으로 걸었던 과방 복지, 대여 복지, 게시판 부착, 신입생 길라잡이 제작, 취업 정보 게시를 이행했습니다. 과방 내에 거울, 고데기,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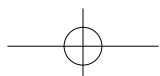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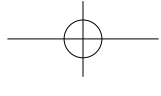
산을 비치하고, 전공 강의실 앞에 게시판을 부착하여 학사 달력과 학과 행사, 취업 정보, 신입생 길라잡이를 게시했습니다. 3월에는 개강 총회, 연합 MT를 진행했으며, 4월에는 시험 기간 강의실 개방, 중간고사 간식 드리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5월에는 사학과의 밤과 춘계 학술 답사가 있었고, 6월에는 기말고사 간식 드리미 행사와 강의실 개방, 종강총회를 끝으로 1학기 학생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학생회 활동 중 졸업생과 재학생, 신입생이 함께한 사학과의 밤 행사는 제게 가장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교수님들까지 함께 친목을 다지고,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푸는 역할을 했던 대동제의 주점이 작년부터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컸습니다. 이러한 주점의 역할을 잇고자 계획했던 사학과의 밤 행사를 진행할 때, 학생회가 직접 자리와 안주, 주류를 제공하는데 그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걱정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과 조교님과 더불어 많은 졸업생과 재학생이 참여해주셨고, 선후배 모두 함께 어울리자는 의미를 담고자 했던 사학과의 밤이 성황리에 마칠 수 있어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학과 소식지를 볼 때, 항상 학생회의 글을 먼저 읽었습니다. 맨 첫 장이기도 하지만 진심이 담겨있는 글이어서 가장 먼저 읽은 것 같습니다. 항상 부원들에게 감사하다,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등의 이러한 감사가 그때는 온전히 와닿지 못했는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그들의 감사에 공감됩니다. 당선되고 나서 잘할 것이고, 수월하리라 생각했던 학생회장의 자리는 즐겁기도 하며 더불어 무겁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이 글을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항상 학과에 관심과 애정으로 힘이 되어주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학과 행사에 함께해주신 학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제가 찾아볼 때마다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사학과 교수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학생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해주시고,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이동륜 조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외적인 일을 도맡아 항상 힘이 되어주는 지수빈 부학생회장과 史뿐사뿐 학생회, 꼬마 집행부 친구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다들 쉴 때 회의에 나오고, 행사를 준비하면서 언제나 잘 도와주어 제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겪은 여러 문제와 고민을 들어주시고, 해결 방법들을 알려주신 역대 회장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의 자리에 서니 한 학기를 마치는 데에도 정말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과 응원을 원동력 삼아 2학기에도 열심히 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학년의 구분 없이 소통하며, 사학과 여러분들의 학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학기에도 사학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소리

하재윤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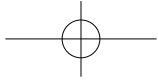
◆◆◆ 인하역사연구회 학회장's REVIEW

안녕하세요 인하역사연구회-사랑의 회장 하재윤입니다. 부족한 글솜씨와 어린 나이에도 학과 소식지의 앞부분을 장식해야 하는 큰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마음으로 지금까지의 글들을 열심히 정독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말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시간의 고민과 정리 끝에 사학과 학우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를 미흡한 글로나마 적어보았습니다.

학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시간을 쏟은 부분은, 1년 동안의 기획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선배, 동료 학우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인하역사연구'를 1집부터 정독하는 등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학회를 분석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로 학회의 1년을 기획하면서 제가 가진 비전은, 학회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과 학회의 학술적 성취를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고, 심지어는 모순적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해결해준 것이 바로 선배, 동기 학우들의 조언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이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겨울방학과 2019년도 1학기에는 먼저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회 전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보다는 소모임을 만들어서 본 활동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회의 활동을 이원화하게 된 것입니다. 격주로 진행되던 학회 활동을 본 활동과 소모임 활동으로 번갈아 진행했고,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본 활동은 방학을 활용하여 학기 중에는 읽을 수 없었던 단행본인 <대항해시대>를 읽고 리뷰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4차례의 논문 리뷰가 있었습니다. 타 학문과의 연계를 시도한 <멕시코 한인이주>발제가 있었고, 서양사에서는 십자군 전쟁, 그중에서도 4차 십자군 전쟁의 원인을 경제적 측면에서 찾는 <4차 십자군과 베네치아의 경제발전>발제가 있었으며, 한국사에서는 광해군대 경제정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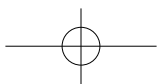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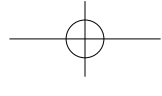
대한 성격 논의를 다룬 <광해군대의 경제정책>과 홍경래의 난 주도세력을 규명하고자 한 <홍경래의 난 연구쟁점>발제가 있었습니다.

소모임은 방학 때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대항해시대>를 나눠서 요약해보기도 하고, 토론에 집중해보기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학기가 시작되고는 19학번 후배 학우들의 열렬한 학구열 덕분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정조의 개혁에 대한 성격 논의>, <조선의 왕권과 신권>, <광해군에 대한 평가>등의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풍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도나 학회의 구성보다도, 학회원들의 열렬한 학구열 덕분이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학회장의 부족으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소모임에서의 활동이 토론과 한국사에 국한되어있었다는 점과 본 활동이 학술적인 성과로까지 이어지진 못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1년의 비전으로 선정했던 두 가지 중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은 학우들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고, 2학기에는 학술적인 성취까지 이뤄내는 모습,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던 아쉬웠던 점들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학회장을 맡게 된 나이는, 아마 인하역사연구회에서는 최연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린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앎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한 저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패기와 열정뿐이었습니다. 그 패기와 열정은 '사랑'에 대한 사랑이 되었고, 비전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사랑이 있기에 1학기 동안의 활동을 재밌어서, 좋아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이후의 학회장 자리도 희생하는 자리가 아니라, 재밌어서, 좋아서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학우 여러분도 학과와 역사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디 '즐겁게' 활동하고, '재밌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사탁본부의 소리

정우현
(18)

◆◆◆ 35대 답사탁본부장's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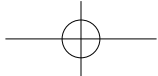
정신없이 바빴던 한 학기가 지나고 벌써 7월이 되어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바쁘게 흘러갔지만 생각해보니 2019년 1학기는 저에게 정말 의미가 있었던 한 학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1학년 입학하고 나서 답사탁본부에 부원으로 들어갔던 것이 어제 일 같은데 답사탁본부의 부장이 되어 부원들을 이끌어 나가게 된 지 벌써 반년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떠올리니 시간이 정말 빠른 거 같아서 놀랍니다. 반년 동안 부족한 저와 함께 열정을 가지고 성공적인 답사를 위해 열심히 뛰어준 부원들에게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처음 부장을 맡게 됐을 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저의 소심한 성격도 한몫했겠지만, 무엇보다도 부장을 맡았던 선배들만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를 초조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장의 일을 배우고 집행부를 꾸릴 때 부담스러운 제안임에도 흔쾌히 집행부를 도맡아 주고 열심히 일한 집행부들 정말 고마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답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정말 유쾌하고 재밌었습니다. 답사 코스를 짜기 위해 밤늦게까지 남아주며 이 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시간을 써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즐겁게 웃으면서 같이 일해 준 집행부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원들도 정말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원들과 추억을 쌓다 보니 어느덧 더욱 성장한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학기가 시작되기 전과 학기 중에 일일 답사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명동을 답사하기도 했고, 새내기들과 고궁 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학기 중에 인천 중구의 개항 시기의 여러 유적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일일답사는 그 특성 상 하루만에 다녀올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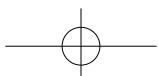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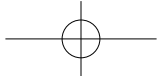
야 하기 때문에, 주로 인천과 서울로 일일답사를 갑니다. 그렇게 주제를 선택하고 일일답사를 준비하다 보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곳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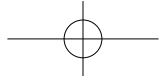
개강 후에는 지도 교수님인 박은경 교수님과 본격적으로 강원 춘계 답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행부와 부원들과 함께 답사를 준비하고 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내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값지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부장이 아니었다면 전부 경험하지 못했을 추억들입니다. 1학년 때부터 해온 답사탐본부라서 더 애정이 가고 답사라는 행사도 애정이 갑니다. 만약 입학할 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망설임 없이 답사탐본부에 들어갈 것이고 다시 부장을 맡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답사탐본부 집행부와 부원들, 항상 저를 도와주는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답사탐본부 부장으로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에 정말 설렙니다. 앞으로 답사탐본부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원 지역 답사 05/08~10일-



정우혁(18) : 답사탁본부장으로서의 답사

1학년 때 다녀온 춘계·추계답사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었지만 이번답사는 아마 평생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다. 배운 것도 느낀 것도 많았던 답사였다. 처음에 교수님이 전라도 쪽과 강원도 쪽 어느 곳이 좋겠냐고 물어보셨을 때 나는 고민 없이 바로 강원도를 택했고 그것은 좋은 선택이었다. 강원도는 교수님이 풍류와 은둔의 고장이라고 언급하신 것처럼 나에게 무척이나 신비로운 곳이었고, 추억이 담긴 곳이다. 자라면서 강원도에 갈 기회는 통 없었다. 그렇지만 이런 멋진 강원도를 답사, 그것도 답사를 준비하는 입장에 서서 두 번이나 만나게 된다는 것은 무척이나 즐거운 일이었다.

답사 첫째날의 날씨는 무척이나 좋았고 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을 알려주는 것만 같았다. 아침엔 무척이나 바빴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듯 아침의 준비가 중요했다. 그러나 내 걱정이 무색하게 일이 잘 진행되었고 제 시간에 잘 출발할 수 있었다. 내려서부터 바로 식사를 하였다. 나는 답사 내내 우리가 고른 식당과 메뉴가 적당한지 맛은 괜찮은지 궁금했다. 그럴 때 마다 맛있다고 해주는 대답은 나와 다른 부원들을 뿌듯하게 해주었다. 첫째 날엔 평창만 갔다. 성보박물관 다음으로 방문한 월정사는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절의 특징을 보여주듯이 두 번째 방문에 도 탁 트인 절경과 위엄을 여전히 보여주었다. 웅장한 건물 앞의 높은 8각 9층 석탑은 그 당시의 불교의 위용이 어떠한지 잘 보여준다.

다음의 상원사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곳이다. 월정사보다는 작으나 산속에 둘러싸인 이곳은 그



유래가 명확하고 얹힌 이야기가 많아 가치 있는 곳이다. 방문했을 때 나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볼
경을 크게 읽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제가 잘 들리지 않았고 아쉬웠던 곳이다. 둘째날은 룡
두 곳을 방문했다. 명주군왕릉은 진골귀족 김주원의 묘로, 왕의 무덤 못지 않게 규모가 있었다. 그러
나 공양왕릉은 비석하나 없이 쓸쓸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권력의 무서움을 알게 해주었다.
오죽헌과 선교장은 모두 고택으로, 누군가가 살던 곳이다. 두 곳 모두 그 크기와 규모가 컸으며 그
만큼 여유를 줘 이번 답사에 여유로움을 더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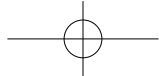
죽서루도 그런 곳 중 하나였다. 관동팔경 중 하나인 죽서루는 그 이름처럼 주변에 대나무가 많았
고, 그 누각에서의 풍경은 지난 세월 다녀오면서 여러 방문객들이 느꼈을 감정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었다. 마지막의 굴산사지는 그 터만 남아 황량하지만, 당간지주의 크기로 그 시절의 규모와 위
상을 짐작할 수 있었다

셋째 날의 허난설헌 생가는 올해에만 세 번째 방문이었다. 겨울의 풍경과 벚꽃이 핀 풍경, 5월의
푸른 풍경을 모두 담을 수 있는 허난설헌 생가의 모습은 허난설헌의 그 안타까운 재능을 더 돋보이
게 한다.

마지막 목적지였던 낙산사는 답사유적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이었다. 또, 그만큼 볼 것이 무지 많
았다. 동해바다 수평선을 끼고 있는 의상대 또한 그 주위 경관이 무지 빼어났다.

답탁부장을 처음 맡을 때부터 답사가 끝나기 전까지 나는 항상 걱정했고, 불안해했다. 그러나 지금
은 돌아보며 생각해보니 너무 걱정을 사서한 것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부장으로서의 경험은 나의
내면적 성장을 이끌어 주었다.

부장이 되어 선배들의 진심어린 조언과 걱정을 한 몸으로 받고, 동기들의 응원을 받았다. 그런 점
에서 너무 감사하다. 답사탁본부 선배들은 사학과에게 답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
닫게 해주었고, 동기들의 응원은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은 주변 사람 모두가 없었
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나는 이번 답사를 통해 무엇이든지 혼자 하는 게 아니란 걸 알았다. 사람
들은 예상외로 정말 열정 넘치고 헌신적인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이나윤(17) : 많은 것을 보고 느낀 강원도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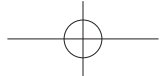
답사 전날 바로 있을 팀플 발표 때문에 늦게까지 준비하다 결국 늦잠을 자고 말았다. 답사 첫날부터 지각이라니! 속으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내 유일한 친구 혜영이 옆으로 조용히 섰다. 답사탐본부 아이들은 일사분란하게 사람들을 지휘하고 인원 체크를 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다들 나보다 어린데도 일을 막힘없이 진행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렇게 모두가 버스에 올라타면서 2019학년도 춘계답사가 시작되었다.

첫날은 바로 평창으로 가서 점심식사를 한 후 성보박물관에 들러 불교예술에 대한 전시를 보았다. 왕실에서 주도적으로 사리신앙을 믿고 관련행사를 주최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난후 월정사와 상원사에 들러 신라 때 자장의 불국토 신앙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침 석가 탄신일이 다가오던 터라 각 절에는 각양각색의 전등을 줄지어서 매달아 놓았고, 바람에 흔들릴 때 마다 기분 좋은 바스락 거리는 소리를 내었다. 유적지 마다 학생들은 발제문을 거침없이 읽어냈고 교수님 역시 이에 덧붙여서 세부 설명을 해주셨다. 수업시간 때 둥둥 따로 놀던 지식들이 한 데 합쳐질 수 있던 진기한 경험이었다. 이후 시간이 빠듯해져서 이효석 문학관을 둘러볼 수 없었지만 교수님이 읽어주신 「메밀꽃 필 무렵」은 보는 것 이상의 감동을 주었다. 눈 앞에서 봉평장과 대화장으로 가는 길목에 흐드러이 핀 메밀꽃이 보일 정도였기 때문이다. 감동을 뒤로 하고 숙소로 돌아가면서 답사의 첫째 날이 마무리 되었다.

사실 있는 친구라곤 혜영이 밖에 없는 나는 답사 이외의 활동이 더욱 버겁게 느껴졌다. 그러나 숙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들 좋은 언니, 친구들이었다. 비좁았던 내 인간관계가 조금은 넓어진 듯해 뿌듯해졌다. 그렇게 우리는 술을 마시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전의 어색함을 풀 수 있었다.

둘째 날은 그래도 비교적 적응을 해서 그런지 더 재미있게 느껴졌다. 명주군왕릉에 들러 강릉김씨의 위엄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반면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릉은 약간의 초연함, 처량함을 느낄 수 있었다. 두 왕이 당시의 어떤 이미지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 해 인상이 깊었다. 둘째 날 일 정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소는 죽서루였다. 말로만 듣던 관동팔경중 하나로 오십천이라는 강을 끼고 있어 그 경치가 정말 빼어났다. 어제의 술자리로 친해졌던 1403호 사람들은 다 같이 앉아있으며 소위 ‘풍류’를 즐기기도 했다. 그때 휘날렸던 바람이 너무 따스려워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가 보고 싶을 정도였다. 그렇게 답사의 둘째 날이 마무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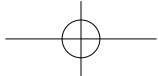
셋째 날은 간밤의 술 때문에 처음 시작이 그렇게 상쾌하지는 못했다. 숙소에서 출발해서 강원도의 으뜸가는 시인 허난설헌의 생가와 기념관에 가게 되었다. 당시 허난설헌이 죽기 전에 자기가 썼던 모든 글들을 지우라고 했지만 허균이 이를 다 외워서 따로 쓰게 되면서 오늘날까지도 그 명성이 이어지게 되었다. 그런 남매의 쿵짝이 맞는 모습을 보면서 집에서 누워만 있는 우리 언니가 언뜻 생각나기도 했다. 그리고 경포대에 들러 경포호와 이를 둘러싼 소나무 숲의 절경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의상대에 들렀다. 의상대는 아주 어릴 적에 가봤던 터라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번에 가서 본 의상대는 아마 나이가 더 들어서도 기억에 남을 만큼 그 절경이 아름답



다웠다. 먼저 의상대에 올라 의상대사의 빛나는 업적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첫째 날 들렀던 상원사, 월정사 시기와는 다른 화엄사상이 전파된 것을 보고 강원도 불교문화에 대해 나름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의상대에서 본 풍경은 정말 놀라웠다. 쪽빛바다의 동해바다는 정말 들어가서 빠지고 싶을 정도로 맑았고 계속해서 들리는 목탁소리는 귀를 즐겁게 해주었다. 낙산사 역시 의상이 화엄사상의 종점을 보여주는 듯 해 인상에 남는다.

이번답사는 정말 이전과 다르게 공부를 하고 가서 그런지 더 깊게 와 닿았던 것 같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많은 것을 배우고 교수님께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식의 답사라면 고학번이 되어서도 꼭 참여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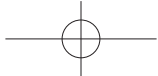




문지혜(15) : 마음의 여유, 감사로 바뀐 순간

사학을 복수전공으로 시작하면서, 들어온 말이 있다. “사학의 꽃은 답사다.” 사학을 공부한다면 가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복수전공생 타 학과생으로 학과행사인 정기 답사를 갈 수 있나? 친구도 없는데,,, 등등 수많은 핑계들이 내게 생기고 있었다. 많은 핑계를 생각해내는 나를 보며 내 안에 두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한 학기 두 학기를 고민하다 결국 4학년의 마지막 학기가 되었고 나의 두려움때문에 좋은 배움의 시간을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더 커져서 답사를 결정했고 이왕이면 수업을 듣고 잘 준비하라는 마음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수업을 들으면서, 학우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답사지인 강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아우르는 핵심들을 배울 수 있어 너무 감사했다. 그렇게 점점 답사 현장으로 가는 날이 기다려졌다. 하지만 막상 그날이 다가오자 다시 걱정이 생겨나고 곧 두려워졌다. 가서 아는 게 없어서 잘 누리지 못하고 오면 어찌지, 혼자 있을 것 같은데 어색해서 어찌지,,, 출발하는 날까지도 그냥 가지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처음 결정한대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과 조금의 설렘으로 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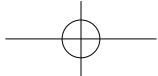
2박 3일의 시간들이 내게는 모든 순간이 감사했다. 내가 했던 걱정들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알려주었고 나의 작은 생각을 뒤에 얻는 값이 있었다. 순간순간 체력적으로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도 이 시간에만 누릴 수 있는 교수님의 강의, 학우들, 날씨 등등에 다시 감사함으로 집중할 수 있었다. 어느 한 곳이 특히 기억나거나 별로였던 순간은 없었다. 그럼에도 제일을 꼽으라면 나는 둘째 날 점심을 먹고 간 공양왕릉과 그 다음 죽서루로 이어진 시간을 말하고 싶다.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 그 에 관한 슬프고도 비극적인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에서 인간과 권력으로 인한 인간의 악함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맹자는 사람은 선하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인간의 기본적 성향은 악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인간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선과 악을 분리하는 것 같다. 권력이 그때에 큰 힘을 가지게 해주는 것 같다. 공양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같이 말이다. 곧 자신의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더 큰 악을 만드는 것 같다. 권력을 잃은 인간의 끝은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현대 사회에서 권력은 부와 동일시된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 중 가장 것은 이것이 아니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약간은 염세적인 생각들을 이어갈 때 죽서루에 도착했다. 그 위에 올라가 바람을 느끼며 풍경을 보니 아까의 생각들은 어느새 저 편으로 사라져 있었다. 이런 곳에서 책을 읽으며 쉬고 여유를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그 자리를 채웠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에, 더 구체적으로는 마음의 여유에 달려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지금 내상황이 어려워도 큰 두려움이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털어버리기 비교적 쉬웠던 것 같다. 그 반대라면 작은 것 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것 하나하나가 다시 여유를 잃어버리지 했다. 이제야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본연, 그 본질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아주 조금 알 것 같았다.

답사 이후의 삶에서 기억해야 할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불편했던 순간들 까지도 다 감사로 여길 수 있게 됐다.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시기에 재정에 대한 고민이 있는 시기에 풍류와 은둔의 강원에서 어찌면 다시는 느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비록 역사, 문화적으로 수준 있는 경험을 충분히 못했을 수도 있지만 다음에 또 올 기회를 기약하며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야겠다. 마음의 여유를 누리며 모든 상황 사랑을 그 자체로 보는 능력을 키우며 말이다. 나에게 답사는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머리에서 마음으로 삶으로 꺼내주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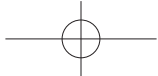
장서영(19) : 살아 숨 쉬었던 강원도의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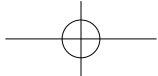
어릴 때부터 답사는 남부럽지 않게 많이 다녔다. 나와 동생에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보여주고 싶어 했던 아빠 때문에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저곳을 다녔던 탓이다. 고등학교 때도 강화여고를 재학하면서 ‘강도시기’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던 연구 덕에 강화도의 모든 유적지를 거의 다 둘러봤다. 하지만 이번 답사는 이전의 답사들에 비해 더욱 특별하고 내 기억에 남을 것이다. 왜일까 돌이켜보면 미리 답사지에 대해 이토록 자세히 공부했던 최초의 답사, 사학과에 오기 전부터 기대했던 과의 꽃인 답사, 처음 가보는 강원도라는 지역, 선배 동기와 함께한 시간이라서 등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것 같다. 그 만큼 이 답사가 나에게 갖는 의미는 너무 크고 앞으로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강원도는 처음 가본다. 옛날에 삼척에 한 번 ‘잠시’ 가본 걸 제외하면 정말 처음이다. 그래서 그 동해바다가 너무 아름다웠고 아직까지 기억에 가장 크게 남는다. 절대 그렇기에 낙산사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낙산사는 떡을 준다는 사실도 말이다. 이에 버금갈 정도로 기억에 남았던 곳이 공양왕릉이다. 공양왕릉의 그 웅했던 모습, 명주군왕릉에 비하면 한없이 작았던 그 공양왕릉의 산 위의 무덤 4개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심지어 그곳이 정확한지도 아직 모른다니 마음이 썩 좋지 않았다. 이렇게 감정에 몰입하고, 그 유적지에 있을 사람에 빙의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내가 터득한 답사 요령인데, 공양왕릉 만큼 완벽하게 몰입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오래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있을 곳이지 싶다. 이외에도 시인 허난설헌을 만났던 생가와 화가 신사임당 만났던 생가와 오죽헌, 자장을 만난 월정사, 의상을 만난 낙산사, 범일은 만난 굴산사지 까지 모두 기억에 남는다. 2박 3일 도안 난 단순히 절, 절터, 집, 자연을 보고 온 것이 아니다. 실제 그곳에서 살아 숨 쉬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고 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답사가 가지는 참 의의가 아닐까 싶다.

답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나는 조금 더 특별했다고 생각한다. 일단 지역문화탐구 수업을 들은 것이다. 처음 느껴본 대학 수업과 발표를 이 수업에서 교수님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정말 다양한 시대의 많은 것들을 배웠고, 잊어버릴 수 있던 내용이지만 답사에 가서 직접 그 내용들을 다시 들으니 이제 평생 기억할 만큼 내 것이 되었다. 더 답사를 능동적이고 또 검증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또한 답사편집위원장을 맡아 편집부장언니를 도와 답사집을 만들면서 답사에 더 애정을 가지고, 조금 더 안 상태로 답사에 임할 수 있던 기회인 것 같다. 많이 힘들었고 어리숙했지만, 도움을 줄 수 있고 단 그만큼 나도 뿌듯했기에 잘 한 선택이었던 것이라고 확신한다.

앞으로 사학과에 다니면서, 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답사를 더 다니게 될까?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다닐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 봤던 모든 답사지들의 느낌과 배움은 답사 이상의 것이었다. 사진으로만 봤던 월정사 8각 9층 석탑의 신기함, 상원사의 힘듦, 공양왕릉의 황량함, 낙산사의 그림 같은 풍경, 상원사의 불경소리, 진전사지 지주의 어딘가 모를 웅장함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속에 있다. 강원도에 또 이렇게 배움과 추억을 남기고 올 수 있어서 행복했고 역사를 공부함에 있어 도한 번의 동기와, 애정을 쌓을 수 있었다. 살아 숨쉬었던 강원도에게 반가웠다고 말해주고 싶다.





김고은(19) : “개화(開花)”

진로를 역사 쪽으로 정한 이후 열정이 넘치는 사학도가 되기 위해 관련도서도 찾아 읽고, 봉사 활동도 한 결과 꿈에 그리던 사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후 무엇보다 기대가 되었던 행사는 바로 ‘답사’였습니다. 그 동안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으로 많은 유적지를 방문하였지만, 유적지를 눈으로만 담았지, 가슴으로는 담아가지 못했습니다. 지역문화탐구라는 소중한 수업을 통해 강원도에 방문하게 되어 이번에는 눈과 가슴 모두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충청, 경상도 지역만 가보았기 때문에 강원도는 저에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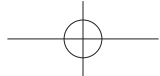
수업 첫 시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원도는 저에게 풍류보다는 은둔의 이미지였습니다.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강원도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였고, 그저 관광지로서 몇 개의 도시를 지목하는 수준이었던 저를 반성합니다. 특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자부했던 신사임당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였을 때에는 신사임당을 어머니로서 한정 지어 인식한 저를 반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성을 통해 ‘신사임당, 화가로 태어나 어머니로 죽다’라는 제목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첫 답사, 그리고 첫 발제로 너무나 떨렸지만 교수님들과 답사탁본부, 그리고 지역문화탐구를 수강하는 학우들 덕분에 즐거운 여행을 한다는 마음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첫날 강원도에 점심을 먹으려고 내딛던 그 순간에 인천의 바람과는 다른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이동하는 중간에도 푸르렀던 창 밖은 마치 한 폭의 끊임없는 풍경화가 펼쳐진 것 같았으며 잔잔히 흐르는 냇물과 저저귀는 새소리 또한 교수님께서 표현하신 ‘풍류의 고장 강원도’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낙산사였습니다. 제가 맡은 발제문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푸른 바다와 절벽, 그 위네 놓여진 의상대, 그리고 의상대를 물들은 단청의 조화가 한 눈에 담기조차 버거워 친구들과 입으로 감탄사를 연발하였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비춰도 바다 향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와 그 열기를 식혀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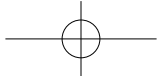
3일 동안 시간이 어떻게 흘러 간지도 기억이 잘 안 날만큼 너무나 빨리 흘러 학교에 도착하였을 때 아쉬움이 정말 컸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걸어서 힘들었지만 빠르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일상에 비해 제 걸음속도에 맞춰 주변을 바라보게 되니 이름도 궁금하지 않았던 작은 들꽃에게 이름을 붙일 여유가 생겼으며, 항상 나무의 밑만 바로 보다가 새순이 돌아나는 나뭇가지의 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감히 강원도에 이름을 하나 붙이자면 여유의 고장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여유 없이 바쁘게 지내던 저에게 쉬어갈 순간을 갖게 해준 강원도의 길에 감사를 표합니다. 흔히 사학과 꽃으로 답사를 가리킵니다. 역사에 관심을 가진 그 순간부터 사학과에 입학하기 전까지 그저 꽃봉우리에 불과하던 제 자신이 이번 답사를 통해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꽃잎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을 그 순간에 저의 첫 답사를 회상하여 좋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좋은 열매란 무엇일 까라는 의문을 품어 매사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싶고,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 조건들을 떠올



리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쩌면 꽃, 아니 그 식물 자체의 목적인 열매 맺
기의 전 단계인 개화를 도와주신 답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별(17) : 모든 것이 새로웠던 답사

처음 지역문화탐구 수업을 수강할지 고민하던 때가 떠오른다. 수강신청에 대한 설명을 듣는 날 지역문화탐구라는 답사수업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사학과를 왔는데 답사 한번은 꼭 가야지라는 생각에 이 수업을 듣고 싶은 목록에 제일 먼저 넣었던 것 같다.

올해 적지 않은 나이에 대학에 편입을 하게 된 나는 나름 패기 있게 입학을 결정했지만 내심 적응을 할 수 있을지, 다들 이상하게 보진 않을 지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막상 수강신청기간이 됐을 때 내가 잘 따라다닐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 수업을 신청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결론적으로 조금의 용기를 내어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조별과제를 해보고 여러 시간을 거쳐 2박3일의 답사를 무사히 다져오게 되었다.

답사는 정말 즐거웠고 행복했다. 우선 문화유적을 이해하며 새로운 시야에서 볼 수 있었던 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오죽헌과 허난설헌의 생가 터였다. 우리는 평소에 이곳을 율곡 이이의 생가, 허균의 생가 터로 인식하고 쉽게 지나쳤을 것이다. 여성사 수업을 따로 듣고 있어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평가를 들었는지 처음 알게 되었는데 교수님께서 이번 답사 때 오죽헌과 허난설헌의 생가 터를 사임당과 난설헌의 생가였다는 것에 더 염두에 두고 둘러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평소와는 다른 시야로 생가를 둘러보니 새롭고 흥미로웠다. 그냥 지나쳤을 사임당의 글도 한 번씩 보게 되었고, 그 때의 사임당과 허난설헌의 모습도 상상해 보며 즐겁게 들어보았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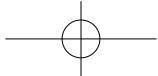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곳이 죽서루인데 처음 죽서루를 마주했을 때 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 난다. 천과 나무에 비친 햇살과 누각의 조화. 죽서루는 관동팔경 중 유일한 보물이라는데 그저 보는 것만으로 가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죽서루는 관동팔경 중 유일하게 오십천이라는 강을 끼고 있는 누각으로 그 경치는 매우 아름다워 겸재와 김홍도도 그림으로 그 모습을 담았다고 한다. 흥미로웠던 것은 발제문을 봤을 땐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른다고 나와 있었는데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안축의 가족에 의하면 이승휴가 고려시대에 지은 것으로 보이며 이승휴와 죽죽선녀와의 이야기는 매우 슬프고 인상 깊었다.



죽서루

그대 어디 갔는지 모르고
내 마음 돌 곳 없으니
누각 하나 그대 생각하며
지어
햇살 닿은 천이
햇살 닿은 앞이
내 마음 위로해 주듯
그대 이름 지워주기를





안성호(15) : 일상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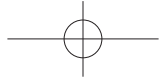
제대 후 학교로 돌아오고 가는 첫 답사였다. 늘 막내, 혹은 간부로 왔었는데 어느샌가 고학번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걱정도 되고, 부담도 되었다. 하지만 발제문, 답사집을 만들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지 라고 다시 깨닫게 되었다. 따스한 늦봄, 초여름의 여유로운 발걸음에 맞춰 나들이 가는 그런 일상이었다. 사학과와 꽃인 답사답게 날씨 또한 환영해 주는 듯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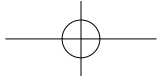
첫째 날을 회상해보자면 사실 시작이 다소 불안했다. 왜냐하면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답사를 2번 정도 갔다는 왔지만 발제는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밥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도 몰랐다. 물론, 다 먹긴 했다. 어느샌가 도착해있는 나의 발표지인 월정사, 도착과 동시에 후회를 했다. 발제문을 좀 더 잘 쓸걸 하고말이다. 무사히 발제를 마치고 나니 그제서야 월정사가 눈에 들어왔다. 부처님 맛을 준비로 분주한 절, 탑, 보살상 등. 만약에, 다시 한번 월정사를 간다면 보살상 미소를 다시 볼 것 같다. 오묘한 미소였다. 긴장이 풀리고 설명을 들으면서 재미있게 돌아다녔다. 물론, 동영상도 찍었다.

둘째 날도 시작이 좋지 않았다. 전날 생각보다 과음해서인지 조금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도 예쁜 곳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사진 찍을 때 만큼은 밝은 표정을 지었다. 그 중 선교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많은 역사적 사실들도 있겠지만, 외관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선조들의 미적 감각도 느껴지고, 무언가 하루만이라도 머물고 싶을 정도였다. 햇살, 연못, 정자, 모든 게 조화로웠다. 또 다른 장소는 공양왕릉이 기억에 남는다. 고려 말 마지막 왕이었던 사람의 무덤이었다. 그는 왕족이었다. 하지만 무덤을 보았을 때 조금 슬펐다. 공양왕의 무덤인지 조차 100% 확실한 것도 아니었거니와 명주군왕릉하고 비교했을 때도 초라했다. 무언가 쓸쓸했다.

마지막 셋째 날, 이날도 역시 시작은 쉽지 않았다. 숙취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느꼈다. 그래도 해장국을 먹고 나서는 괜찮아졌다. 이날은 많은 곳은 안 갔지만, 풍류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곳으로 다닌 것 같다. 관동팔경 중 하나인 경포대, 뛰어난 절경이 있는 의상대와 낙산사, 저절로 흥얼거림이 나왔다. 머물렀던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고 느껴졌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걱정이 많이 되던 답사였다. 하지만 걱정과는 반대되게 너무나도 즐거웠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천천히 더 즐기고 싶을 정도였다. 좋은 추억, 맛있는 음식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이라 좋았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후에 다시 치열하게 살다가 문득 생각이 날 것 같다. 2019년 어느 날 따스한 봄날에 그렇게 모두 함께 떠났던 일상이 있었지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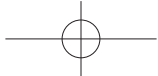




김태환(18) : 답사를 통해 答史한다

사학과와 답사는, 사적지를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기록으로만 서술된 역사적 사실이 아닌,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얻은 경험을 해내는 활동이다. 앞 문장에서 서술했듯이 역사학도에게 답사활동은 중요한 경험인 것이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단지 교과서나 참고서에 서술된 기록만으로 ‘역사’라는 학문을 탐구하였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아낼 수 있게 하였지만 그 사실의 정확한 역사적 의미를 알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하면 하고 싶었던 활동 중에서 ‘답사 활동’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1학년 때 학과 내 동아리인 ‘답사탐본부’에 가입하여 동아리 활동을 했지만 거주지가 전라남도 광주이기 때문에 방학 때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한 그 시기에는 답사 활동 보다는 학점 관리에 우선적으로 집중했기 때문에 춘계, 추계 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2학년 1학기에 ‘지역문화탐구1’이라는 과목을 신청하게 되면서 답사를 갈 기회가 찾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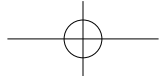
우선, 첫째 날에 주로 ‘강원도의 불교’를 주제로 한 사적지들을 갔었다. 1일 차에 갔던 답사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을 했던 곳은 ‘상원사’였다. ‘상원사(上院寺)’는 오대산의 중대에 있는 절이며 이에 관련된 최초의 기록이 ‘삼국유사’의 통일신라 관련 기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상원사’가 6.25 전쟁 때 한암이 이 절을 지켜낸 공로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러 사찰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6.25전쟁 때 상원사는 이 절을 지키면서 수행하던 한암에 의해 월정사 등



다른 사찰과는 다르게 크게 불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상원사에 존재하는 ‘상원사 동종’을 보면서 통일 신라 시대 범종에 새긴 조각수법의 정교함과 성덕대왕 신종보다 더 오래된 역사적 사실을 깨달았다.

그 다음의 둘째 날에는 첫 일정으로 ‘명주군왕릉’을 갔다. 그 곳에서 약 40명대의 답사 참여 인원 앞에서 글을 발표해야 한다는 긴장감 때문에 버스에서 많이 긴장했었다. 하지만 경사가 가파른 명주군왕릉에 올라가 그 많은 인원들 앞에서 발제문을 발표하면서 긴장감이 해소되었다. 한 손에는 직접 기록한 글이 써진 답사집을, 다른 한 손에는 마이크를 들고 발제문을 발표했는데, 내 목소리가 산중으로 울려 퍼지면서 더욱 발표를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다. 그 때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답사집을 손에서 놓칠 뻔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발제문 발표를 잘 해냈다. 그리고 ‘명주군왕릉’이라는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단순히 인터넷에서 보기만 했던 사진들과는 다르게 역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되는 사료를 얻었다는 큰 기쁨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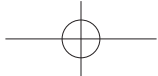
마지막의 셋째 날에는 낙산사에 가서 죽서루에서 자연친화적인 경치를 보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해소시켰다. 비록 마지막 날이라서 실제로 많이 지쳤고, 기숙사에 가서 빨리 휴식하고 싶었지만, 낙산사 주변의 시원한 바다 풍경을 보고 피로가 싹 풀렸다. 그 곳에서 발제자의 발표와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높은 곳에 있는 정자로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다. 그곳이 내게 얼마나 인상 깊었던지, 정자에서 파노라마 기법으로 촬영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바다풍경을 알리는 동영상을 찍었다. 바다 풍경 뿐만 아니라 낙산사의 오래된 역사에도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의상대가 부석사뿐만 아니라 낙산사도 창건했는데 낙산사의 위치가 강원도의 양양이라는 사실을 단체 학술 답사를 통해 처음으로 알았다. 낙산사는 의상이 강원도의 양양에 관음보살이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홍련암 아래 관음굴에서 21일 동안 기도를 드린 이후 창건되었다고 한다. 낙산사에서 새롭게 얻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기록으로만 의존하여 역사를 탐구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록 탐구와 답사 활동을 조화롭게 하는 방식을 통해 ‘역사’라는 학문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 생애 첫 단체 학술 답사에서 갔다 온 가장 인상 깊었던 답사지 3곳을 선정하여 본문에 사적지에서의 경험과 느낀 점을 서술했다. 이번 답사에 대해서 감히 평가해보자면 이 글의 제목처럼 ‘答史’, 즉 역사적 사실에 응답하여 이에 대해 탐구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했던 답사였다.



오현석(18) : 암하노불의 고장에서 역사와 풍류를 즐기며

필자로서는 이번 강원도 답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다. 특히, 답사 전에 각자 맡은 유적지나 역사에 대해 준비하면서 강원도에 대해 알아보았기 때문에 기대는 더욱 커졌다. 필자는 이 글에서 강원도 답사를 어떻게 참여했고 그 개인적인 소회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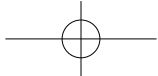
2박 3일의 답사기간 동안 먼저 필자가 느낀 것은 역사를 알아가고 연구하는데 있어서 답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사실 필자는 학교에서 가는 것을 제외하면 답사를 가본 적이 없고 그나마도 학교에서 간 것은 학술적 의미의 답사라고 하기에는 모자랐다. 그래서 필자가 역사를 접한 주요한 방법은 글이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수업을 듣고 답사를 오기 전까지 답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답사를 가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글이 현실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유적지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유적지를 직접 보니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양왕릉에서 나타나는 망국의 그 애잔함을, 관동팔경에서 정철이 예찬



한 경포대와 의상대의 아름다움을 직접 눈으로 봐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역사적 의미도 느낀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늦게 한 것에 대해 필자는 반성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역사 공부의 한 방법을 깨우칠 수 있었다는 것에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

필자가 답사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역시 공양왕릉에 방문했었던 것이다. 공양왕릉은 답사 전에 유적지 조사를 했었던 곳이고, 공양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기에 가장 기대되던 장소였다. 조사를 하면서 알았지만 직접 본 공양왕릉은 참 초라했다. 특히 그날 일정에 먼저 명주군왕릉에 방문했었기 때문에 작지만 왕릉으로서의 당당함이 있는 명주군왕릉에 비하니 공양왕릉의 초라함은 더욱 부각되었다. 망국의 군주였던 공양왕은 양위이후 삼척에서 두 아들과 함께 교살되었다. 그런데 이후에 공양왕릉은 그 위치가 3곳이었는데 우리가 방문한 삼척지역은 그 중 하나였다. 필자는 그 3곳 중 삼척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도 있지만 방문했을 때 느껴진 망국의 애잔함이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이다. 보통 왕릉은 왕을 위해 크게 하나를 만들고 그 주변에 석상들을 만들어서 꾸미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양왕릉은 약간의 계단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4개의 봉분만이 있을 뿐 그 어떤 장식도 없었다. 하지만 필자는 당시 역사적 상황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이런 모습이 더욱 현실감을 준다고 생각했다. 망국의 군주와 그 일가의 죽음에 분명히 지역민이나 추종자들은 슬퍼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왕조가 감시하기에 무덤을 정교히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영성하게 만들어진 왕릉에서 더욱 신뢰성을 느낄 수 있었고 공양왕일가 뿐만 아니라 무덤을 수습했던 당시 추종자들의 슬픔도 느낄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기억에 남았던 장소는 의상대였다. 의상대는 관동팔경중 하나인 장소이다. 필자는 솔직히 풍류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박은경 교수님께서도 답사를 하면서 풍류도 즐기라고 강조하신 바가 있었다. 아름다운 동해바다와 파도, 절벽은 정말 아름다웠다. 그 광경을 보면서 도시에서의 지친 정신을 달랠 수 있었고 잠시 상념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필자는 이러한 경험이 풍류를 즐기는 것이 아닐까 하고 느끼게 되었다.



박상진(18) : 回春하는 巖下老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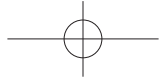
인천에서 3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이번 답사지, 강원도. 강원도 산나물로 만든 비빔밥을 먹고 도착한 곳은 성보박물관과 월정사. 특히 월정사에서 설명을 들으며 불어오는 바람과, 여기에 맞춰 넘실대는 연등의 모습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마치 강원도의 老佛이 우리를 맞이하는 듯 하였다. 불전을 돌아보며, 참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적광전엔 석가모니불이, 지장을 모시는 지장전엔 수광전이라는 이름으로 아미타불이 있었으니 말이다. 본래 불전에는 각기 맞는 불상이 모셔지지만, 전쟁 후 개축하여 바뀐 듯 하다고 선생님께서 알려주신다. 천년고찰도 사람들 마음대로 바뀌는가 보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8각9층 석탑도 마음에 와 닿았다. 처음약왕보살이 부처를 본다고 했을 때, 당연히 大殿을 보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탑에 봉안된 불사리를 본다는 것에 내심 놀랐다. 아직 볼게 많았고, 시간이 10분 이상 남았는데도 다른 학우들이 이미 중앙에 모여 출발을 일찍 한 점은 아쉽다.

다음으로 간 곳은 상원사 어찌나 돌계단이 높고 험한지 오르는 길부터 조심 또 조심해야 했다. 金剛門을 지나니 한 번 더 석계가 나오고 바로 상원사의 모습이 펼쳐졌다. 규모는 월정사보단 작았지만 6.25의 전화를 면한 고찰이었다. 발제 설명을 듣는데 “문수보살, 문수보살~”하는 염불만 들렸던 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상원사 동종은 생각보다 크기가 크진 않았는데, 아름다웠다고 느꼈던 기억이 난다. 이후 상원사와 다음에 간 이효석문학관은 시간이 부족해 못 보아 월정사와는 다른 의미로 아쉬웠다. 하지만 아쉬움이 있는 만큼 다음에 이곳에 또 올 때 오늘날 내가 발견하고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며 숙소로 말걸음을 돌린다.

둘째 날, 첫 답사지는 명주군왕릉이다. 군왕릉에 오르기 전 보았던 청간사와 송덕전에 대한 관람이나 발제 때의 별 다른 설명이 없었던 점은 조금 아쉬웠다. 릉은 능향전 뒷산에 方形으로 2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여기는 계단도 없어 오르는데 힘들었다는 기억이 스친다. 선생님께서 설명을 할 때 능 주변을 둘러봤다. 이때에 비석에 “明呪号北濱京”이라는 문구를 보아 당시 강릉은 명주를 다시 복된 경으로 불린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또 “崇禎記元三丁卯”라는 부분이 생소했는데, 임학성 선생님께 선 비석을 개진할 때 반가에선 청 연호를 기피하여 明의 숭정제 연호를 기준으로 연도를 표기하였다고 알려주신 점은 꽤 흥미로웠다.

다음은 오죽헌. 한 집안의 고택이라지만 규모가 상당히 놀랐다. 관람전 박은경 선생님께서 “오죽헌을 바라볼 때엔 울곡 보다는 신사임당에, 사임당의 친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주의를 주신 점은 아직도 인상깊다. 다만 활대정을 들어갈 때 한 구석에 月下門의 문지방에 걸쳐서 본 활대정은 어떤 각도에서 본 것보다 아주 아름다웠다.

점심식사 후에는 공양왕릉에 갔다. 여기서 오현석 학우가 외워서 발제한 것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설명 후 어찌면 역사에서 중요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인물, ‘근덕면장’의 이야기가 웬지 모르게 인상 깊었다. 한편 공양왕릉은 무덤의 주인이 공양왕이라 확실하지 않은데도, 전구형왕릉, 전효소왕릉처럼 왜 “전(傳)”자가 들어가지 않는가는 의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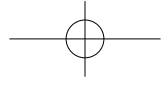


관동팔경중 하나인 죽서루는 꽤 아름다웠고, 초석이 자연석인 점도 신기했다. 죽서루 옆에는 여러 기암들이 많았는데, 이를 石壇農이라 하며 제사를 지낸 것일 수도 있었다고 하신 임학성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난다. 바로 옆의 龍門은 생각보다 작은 크기라 조금 아쉬웠다.

굴산사에서 드넓은 벌판에 멀리 서낭당과 정자나무, 물길, 그리고 한복판에 우뚝 서있는 당간지주는 당시 절의 크기가 어땠는지 짐작케 해주었다. 예상치 못한 옆의 강릉 오독떼기 전수관은 한 번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좋을 법한 장소였다. 이렇게 둘째 날이 저물었다. 이날 밤에 과음을 하는 바람에 다음날 속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이전처럼 맑은 정신으로 둘러보지 못한 점은 많이 아쉬웠다.

강원도는 흔히 ‘암하노불(巖下老佛)’이란 단어로 표현되곤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역사적으로 많은 변천을 겪었다. 서울을 품기도 하였고, 조용한 운둔의 고장이 되기도 하였다. 불교가 융성한 곳이기도 하였지만 쇠퇴한 곳이 되기도 하였다. 어쩌면 강원도는 역동적인 곳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풍류와 은둔’의 고장이 되어갔다. 이런 강원도는 현재에 이르러 평창올림픽 개최, 남북통일철도를 준비하며 다시 새로운 역동의 장소로 회춘(回春)하지는 않을까 기대해 본다.





-해외답사(동남아시아 배낭여행) 1/15~2/17

‘Variety’, 내가 경험한 동남아시아

변규덕(대학원, 베트남사 전공)

‘동남아시아 배낭여행’, 2015년 말 처음 베트남을 다녀온 이후 머릿속에서 줄곧 맴돌던 단어이다. 베트남을 통해 동남아 세계에 진출하였던 나에게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기회가 없었다. 2017년 2학기에 학사 논문을 쓰기 위한 논문답사를 통해 캄보디아 시엠립(Siem Reap)을 다녀온 이후에도 줄곧 베트남만 다녀왔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를 갈 기회가 좀처럼 없었다. 그러던 중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계획하면서 동남아 배낭여행의 기회가 함께 찾아왔다. 대학원을 한 학기 휴학하고 호주에 가서 워킹홀리데이를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남아시아 몇 개 국가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떠오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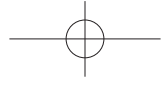
마침내 2019년 1월 15일, 호주 서부의 도시인 퍼스(Perth)에서 약 6개월 동안의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끝낸 이후 나는 동남아시아를 향한 배낭여행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다음 달인 2월 17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나는 인도네시아(Indonesia), 버마(Burma, 혹은 미얀마), 태국(Thailand), 베트남(Vietnam) 4개국의 11개 지역을 방문하였다. 11개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마지막 일정이었던 베트남 하노이(Hanoi)는 그동안 워낙 많이 다니기도 했고 이곳은 현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였기에 실질적인 일정은 3개국 10개 지역이었다.

배낭여행을 출발하기 전 세운 원칙은 두 가지였다. 첫째, 잠은 되도록 호스텔에서 잔다는 것이다. 호스텔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나에게는 세계 각지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매력적이었다. 둘째, 일정을 유동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대략적인 일정을 세워놓기는 하였지만, 여행 중에 정말 좋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좀 더 머무르고 나머지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이었다.

한 달 동안 다녀온 4개국 11개 지역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하고 싶지만, 지면상 제한이 있기에 여러 여행지 중 인상이 깊었던 몇몇 지역만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양해를 구한다.

이슬람 속의 힌두, 발리(Bali)

첫 번째 여행지는 발리였다. 발리는 호주 퍼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3시간이 조금 넘게 걸린다. 호주에 있을 때 호주 친구로부터 발리에 관한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던 터라 기대감이 가득했다. 하루는 호주 친구에게 왜 시드니(Sydney)나 멜번(Melbourne)으로 여행 가지 않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그러자 그 친구는 퍼스 사람에게는 발리가 있는데 왜 굳이 동부로 여행을 가냐는 대답을 했다. 퍼스에서 동부까지의 비행기 값은 왕복 500불 정도이고 발리까지는 300불 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국내인 동부보다 해외인 발리의 물가가 훨씬 저렴한 상황에서 ‘국내여행’보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준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어쨌든 퍼스에 있으면서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발리를 드디어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처럼 역시나 발리에는 호주 사람들이 많았다.

발리는 인도네시아 영토의 동쪽 끝에 있다. 특이한 것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발리는 힌두교를 믿는다는 점이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자 국민의 90%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 속에서 발리는 힌두 문화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다. 힌두 문화의 발리 정착에 관해서는 동부 자바에서 14세기에 전성기를 이루었던 마자파히트(Majapahit) 왕국이 쇠퇴하면서 자바섬이 이슬람화되었고 그곳에서 피신한 힌두 문화가 발리에 정착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발리 곳곳에는 많은 힌두 사원들이 남아 있고 그곳의 사람들 역시 힌두교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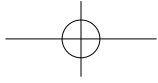
사실 나에게 발리는 본격적인 동남아시아 여행을 시작하기 전 휴식을 위한 장소였다. 발리의 자연환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혹은 발리를 신들의 정원으로 묘사하였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기보다는 경치가 좋은 바다와 같이 몇몇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스노클링, 서핑 같은 수상레저를 경험해보았다. 물론 힌두 사원 몇 곳을 방문하여 발리 힌두교의 모습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슬람과 불교, 그리고 힌두교의 도시, 욕야카르타(Yogyakarta)

발리에서 비행기로 약 한 시간 정도 걸려 도착한 곳은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심부에 있는 욕야카르타였다. 욕야카르타는 흔히 족자카르타(Jogjakarta), 혹은 줄여서 족자라고 불리는 곳이다. 이곳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특별자치주로 남아 있는 곳으로 여전히 독자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술탄이 존재하며(직함 상으로는 주지사) 그와 그 직을 세습하는 그의 후손들에 의해 통치되는 지역이다. 이 도시가 매력적인 이유는 이슬람의 색채가 무엇보다 짙은 이 지역에 세계 최대의 불교 유적으로 알려진 보로부두르(Borobudur) 사원과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힌두교 유적 중 하나인 프람바난(Prambanan) 사원이 있다는 것이다. 이슬람의 술탄, 불교의 보로부두르, 힌두교의 프람바난이 공존하는 지역이라는 점은 나에게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그렇기에 욕야카르타에 머무르면서 술탄의 궁전과 보로부두르, 프람바난을 모두 방문해보았다. 한 지역에서 세 종교를 모두 만난다는 경험은 무척이나 새로웠다. 여기서는 그 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보로부두르 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사실 나에게 있어 보로부두르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 2015년에 최병욱 선생님의 『동남아시아사 - 전통 시대』를 보면서 책의 표지에 있는 보로부두르의 사진을 보고 훗날 이곳을 반드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때문이다. 또한 앙코르왓(Angkor Wat)의 장엄하면서도 정교한 아름다움을 경험한 나로서는 그것과 쌍벽을 이룬다고 알려진 보로부두르를 더욱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욕야카르타로의 접근은 쉽지 않았다. 한국에서 욕야카르타로 이어지는 직항편이 존재하지 않기에 한국에서 오는 방법은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를 경유해서 오는 것이다. 직항과 경유는,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꽤 큰 차이이기에 좀처럼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내로 욕야카르타에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공항이 새로 개장한다고 하니 조만간 한국-욕야카르타 직항 노선 역시 생길 것으로 예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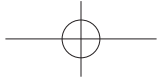
욕야카르타의 최대 중심가인 말리오보로(Malioboro) 거리에서 보로부두르까지는 1시간이 조금 넘



게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은 오전에 가서 보로부두르를 둘러보고 오후에 시내로 돌아오거나 프람바난으로 가는 코스를 애용한다. 그러나 이곳을 보기 위해 4년을 기다린 나에게 이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다. 결국, 나는 보로부두르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2박을 하며 그곳을 세 번이나 보러 다녀왔다. 게스트하우스의 주인 역시 내가 2박을 예약했을 때 조금 의아했다고 한다. 사실 그 근처에는 보로부두르를 제외하고 볼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가 베트남사를 전공하고 동남아시아사에도 큰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자, 그는 이내 수긍하였다. 우리는 내가 그곳에 머무르는 3일 동안 함께 식사도 하고 일출도 보러 가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다.

보로부두르 사원을 처음 보러 갔을 때의 그 희열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멀리서부터 보이는 우뚝 솟은 거대한 건축물의 모습은 캄보디아에서 앙코르왓을 보던 느낌과 비슷했다. 수많은 불탑이 하나의 거대한 불탑을 만들어내는 모습의 이 사원은 그 자체가 하나의 불교세계였다. 8세기경 이 사원을 만들어낸 사일렌드라(Sailendra) 사람들의 건축 기술은 그야말로 감탄을 자아냈다. 거대한 사원과 마주하게 된 나는 한시라도 빨리 그 정상으로 올라가 보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꼭 누르고 탑의 기단부터 정상까지 층마다 한 바퀴씩 돌며 올라갔다. 그곳에 새겨진 화려하고 정교한 부조들은 당시 자바 사람들의 생활상과 불교 세계의 성스러운 신화를 여실히 담고 있었다. 정상에 올라서 바라본 사원의 모습 역시 장관이었다. 정상부에 있는 수많은 스투파(Stupa) 안에는 불상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정상 한가운데 또 하나의 거대한 스투파가 자리하고 있었다. 가히 불교의 성지(聖地)이자 세계 최대의 불교 유적이라고 불릴만한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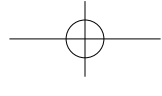
육야카르타와 보로부두르에서의 기억은 이번 동남아시아 배낭여행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좋은 추억이었다. 나는 육야카르타를 뒤로하고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를 거쳐 버마의 양곤으로 향했다.



#보로부두르 사원의 전경



#사원 정상에 스투파와
그 내부의 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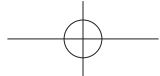
양곤(Yangon), 그곳에 남은 '버마'의 흔적

버마의 첫인상은 강렬했다. 론지를 입은 사람들, 베텔을 씹어 입가가 붉어진 사람들, 얼굴에 타나카를 칠한 여인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 양곤은 내가 버마에서 방문한 첫 번째 도시로 이곳에서의 기억들은 나에게 버마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버마라는 국가를 이번 배낭여행의 코스에 넣은 이유는 이곳에 대한 지적 호기심에 더불어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추천 때문이었다. 2017년에 호찌민(Ho Chi Minh city)에 살 때 그곳에서 일하는 우리 과 선배로부터 처음 버마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에도 동남아시아 배낭여행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은 늘 버마를 최고로 뽑았다. 도대체 어떤 매력을 가진 나라이기에 이들이 공통적으로 버마를 향해 찬사를 바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외면할 수 없었다.

마침 버마 정부의 관광객 유치 정책으로 인해 2018년 10월부터 1년간 한국인, 일본인 관광객에게만 비자를 면제해주었기에 버마 여행이 한결 수월했다. 여행기라는 글의 목적과는 조금 빗겨 나가지만 굳이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 혹자는 버마 정부가 북쪽 경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로힝야족 학살 사건으로 인해 서방 국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수가 감소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인, 일본인 관광객의 비자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시행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이야기이고 버마 정부의 로힝야족 학살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지만, 더 복잡한 그들의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무조건 비난하는 서방 정부들과 언론들의 태도 역시 잘못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대다수가 불교도인 버마족과 이슬람교도인 로힝야족 간의 서로에 대한 반감은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너무나도 뿌리 깊게, 또 견고하게 박혀 있다는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해서도 느꼈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건 양곤에서 본 버마의 모습은 정말 새로웠다. 버마라는 국가는 그야말로 불교 국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모든 사원은 맨발로만 입장이 가능했고 어딜 가나 승려들은 최우선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매일 수많은 사람이 불교 사원으로 모여들었다. 특히 양곤 최대의 불거리이자 버마 불교 예술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쉐다곤(Shwedagon) 파고다는 양곤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였다. 비록 중앙의 거대한 황금 불탑은 공사 중이라 완전한 모습을 눈에 담을 수 없었지만, 저녁 시간에 그곳에 모여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는 많은 버마인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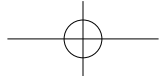
아울러 양곤이라는 도시는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의 역사를 온전히 간직한 곳이다. 불과 얼마 전 정권을 장악한 군부에 의해 네피도(Naypidaw)가 수도로 정해져 천도가 이루어졌지만 버마의 근현대를 오롯이 겪은 수도는 양곤이었다. 버마의 국호가 1989년 미얀마로 바뀌었고 양곤에서 네피도로의 천도가 2005년에 이루어졌으니 양곤은 버마와 미얀마의 수도를 모두 겪은 도시인 셈이다. 그래서인지 영국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과 버마의 근현대를 보여주는 상징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쉐다곤 파고다나 술레 파고다라는 거대한 불교 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네피도는 버마의 '미얀마' 시대를 대표하는 곳이고 양곤은 '버마' 시대의 흔적을 간직한 도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녁 시간의 쉐다곤 파고다



술레 파고다



신성한 불교 도시, 파간(Pagan)

파간을 처음 접한 것은 최병욱 선생님의 '동남아의 역사와 문화'라는 수업을 들을 때였다. 버마 역사 중 파간의 아노라타(Anawratha) 왕에 대한 설명에서 처음 '파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다. 그 이후 학사 논문에서 동남아시아의 신왕(神王, god-king)을 언급하면서 베트남 리 왕조, 태국 수코타이, 버마 파간에 대해 더욱 자세히 공부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파간의 존재를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였다. 때문에, 이번 버마 여행을 계획하면서 파간 역시 방문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파간은 이미 '바간(Bagan)'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인들에게 유명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버마 여행을 계획하는 한국인들에게, 여행하면서 만난 한국인의 말에 의하면 '양곤->인레 호수(Inle lake)->바간->만달레이(Mandalay)'는 가장 인기 있는 버마 여행 코스라고 한다. 심지어 양곤과 바간을 왕래하는 여러 VIP 버스 중 'JJ Express'라는 브랜드의 버스를 타면 태반이 한국인이라고 하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비단 이번 여행에서만 느낀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은 한번 입소문이 나면 그 여행지에 '우르르' 몰리는 경향이 있다. 베트남만 해도 '다낭-호이안(Da Nang-Hoi An)' 코스가 그러니 말이다.

나 역시 의도치 않게 그 코스를 밟게 되었다. 양곤에서 버스로 파간에 도착하였고 파간에서 다시 만달레이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양곤에서 밤 버스를 타면 새벽 5시도 되지 않아 파간에 도착해버려서 짐을 숙소에 맡기고 일찌감치 이바이크(E-bike)를 빌려 이 지역에 산재해 있는 사원들을 보러 다니기 시작하였다. 파간은 온통 불교 사원으로 뒤덮인 곳이다. 이곳에 있는 수천 개의 탑과 사원들은 수많은 관광객의 발걸음을 붙잡기에 충분했다. 이들 중 특히 아름다운 곳을 뽑으려면 여지없이 아난다(Ananda) 사원과 쉐지곤(Shwezigon) 파고다를 말할 수 있다. 사실 파간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대다수가 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남들이 다 하는 대답을 하는 것은 그다지 내키지 않지만, 이 두 곳의 아름다움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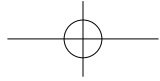
파간 여행에서는 무엇보다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그곳에서 또래의 한국인 남성들을 만난 일이다. 그들 셋은 모두 20대 중반으로 내가 파간에 도착하기 하루 전 양곤에서 파간으로 넘어오는 버스에서 만났다고 한다. 나 역시 파간에 도착한 이후 우연히 그들 중 한 명을 알게 되어 점심을 함께 먹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이 나온 것이다. 내가 알게 된 한 명은 한국에서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하고 세계여행을 하던 중 버마에 들른 것이었고, 그와 버스에서 만난 나머지 둘은 광주 출신의 친구들과 다른 친구들과 함께 태국 파타야(Pattaya)를 여행한 이후 둘만 버마로 넘어와 양곤과 파간을 여행 중이라고 했다. 이들은 내가 지금까지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만난 수많은 동행 중 최고였다. 사실 파간 여행을 이들과 함께하였기에 그 여운이 더욱 오래 남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일로 느낀 바는 혼자 여행하는 것도 좋고 다른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곳에 도착해 동행을 구하고 그들과 함께 일정에 맞춰 여행하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라와디(Irrawaddy) 강에서 즐긴 뱃놀이이다. 파간에 머무른 첫날 앞서 언급한 세 명의 한국인 친구들과 우연히 이라와디 강변에 가게 되었다. 그랬더니 한 버마인 아저씨가 다가와 배를 타고 일몰을 보는 것이 예쁘다고 우리를 유혹했다. 결국, 흥정으로 값을 깎고 또 깎아 배를 탔다. 배 위에서 바라보는 일몰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버마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라와디 강이 붉게 물들었고 저 멀리 강렬히 빛나는 태양이 서서히 사라졌다. 일몰 중간에 배가 이라와디 강 한가운데 있는 모래섬에 정박하였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일몰을 보며, 아무 노래나 틀어놓고 춤쳤다. 그들과 함께 한 파간에서의 기억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추억이다.



아난다 사원

쉼지곤
파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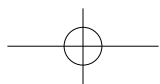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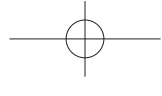


피칸 사람들과 함께



이라와디 강에서
일몰을 바라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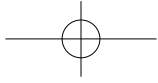
매력적인 국제도시, 방콕(Bangkok)

파간에서의 일정을 마친 나는 버마 북부의 만달레이라는 도시를 거쳐 방콕으로 향했다. 방콕은 이미 한국에서도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로, 동남아시아 최대의 유흥지이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도시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방콕은 태국의 근현대사를 온전히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서양 제국주의가 동남아시아의 대다수 국가를 식민지로 만들던 시절 태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방콕의 힘, 그리고 이곳에서 흔들림 없이 국가의 중심을 잡는 왕실의 힘에 근거한 것이었다. 태국에 있으면서 '국왕'의 존재를 강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 시내 곳곳에는 불과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라마 9세(Rama IX, 1946-2016)와 그의 뒤를 이어 국왕에 즉위한 라마 10세(Rama X, 2016-)의 초상화가 곳곳에 걸려 있었다. 심지어 방콕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수코타이로 넘어가는 버스 운전기사의 옆에도 라마 9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처럼 태국 국민에게 국왕의 존재는 절대적이며 왕실의 힘 역시 강력하다. 태국 정치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총리 역시 국왕 앞에서는 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것 같은 자세를 하고 감히 눈조차 쳐다보지 못하니 국왕은 그야말로 신과 같은 존재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태국 국왕의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하는 존재는 무엇일까? 태국 왕실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라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국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왕권을 뒷받침해 온 불교이다.

방콕에 있으면서 왕궁과 수많은 사원을 둘러보았다. 나는 이 사원들을 돌아다니며 불교가 태국의 왕권이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방콕에서 관광지로 유명한 불교 사원인 왓포(Wat Pho)나 왓아룬(Wat Arun) 역시 국왕의 사원이다. 방콕 현지 친구의 말에 의하면 국왕들은 생전에 자신의 시대를 대표할 사원을 짓는다고 한다. 왓포는 라마 1세의 사원으로, 왓아룬은 라마 2세의 사원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이 이 점을 증명한다. 아울러 왕궁 내에 위치하여 국왕이 직접 관리하는 사원인 왓프라깨오(Wat Phra Kaew), 흔히 에메랄드 사원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웅장함과 정교함, 그리고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태국의 왕실 사원은 일반적인 불교사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화려하다. 나는 왓프라깨오에 있는 에메랄드 불상과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태국인들을 보면서 그 불상이 부처의 상징임과 동시에 국왕의 화신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듯 태국의 불교는 왕실과 함께 발전했고 국왕의 왕권을 뒷받침했다. 즉 태국에서 국왕은 살아 있는 부처로 추앙받는 것이다.

왕궁 및 사원들과 함께 방콕의 가장 큰 볼거리 중 하나는 방콕 국립박물관이었다. 사학도로서 가는 배낭여행에서 박물관은 결코 빠질 수 없는 필수코스이다.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도 버마에서도 모두 국립박물관에 가서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여러 유물을 관람하였다. 방콕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방콕 국립박물관에는 평소 정말 보고 싶었던 람캄행 대왕의 비석이 보관되어 있기에 방콕에 도착했을 때부터 기대하고 있었다. 태국 여행의 일정에 굳이 수코타이를 넣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방콕 국립박물관에서 람캄행 비문을 비롯하여 수코타이, 아유타야, 란나 등 태국 역사 속에 존재하였던 여러 왕조의 유물을 관람하였고, 나아가 현재의 방콕 왕조와 관련된 유물을 다수 접할 수 있었다. 방콕 국립박물관은 동남아시아의 그 어느 박물관보다 관람할 가치가 충분했다.

이렇듯 과거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방콕은 한편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 중 하나였다. 곳곳에 세워진 고층빌딩들과 시내 곳곳에 퍼져있는 지하철들이 서울을 연상시켰다. 대도시의 이러한 편리함이 세계 각지의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다. 수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제도시 방콕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개인적으로 여행 중 대도시를 방문하는 것을 크게 선호하지 않는 나에게 이 도시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방콕은 다른 동남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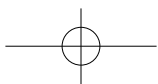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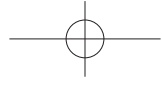
의 대도시, 이를테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Jakarta)나 베트남의 호찌민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방콕에서는 계획보다 하루 더 머물렀다. 방콕이라는 도시가 갖는 매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1박 2일의 일정으로 계획한 아유타야(Ayutthaya)를 당일치기로 다녀왔다는 것도 계획 변경에 일조하였다.



#가장 신성한 사원
왕궁 내 왓프라깨오

람캄행
대왕 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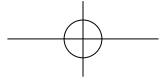


람캄행(Ramkhamhaeng)의 도시, 수코타이(Sukhothai)

앞서 언급했듯이 태국 수코타이는 버마 파간과 더불어 학사 논문을 쓰는 중에 더욱 자세히 공부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번 동남아시아 여행에서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내가 방콕에 있으며 만난 친구 중에 내가 방콕 다음에 수코타이로 향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대다수는 “Why?”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러하다. 수코타이는 수코타이 왕조의 수도였던 곳이고 아유타야 역시 아유타야 왕국의 수도였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태국 역사 속에서 수도였던 도시들이다. 옛 사원들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다는 점 역시 비슷하다. 그러니 그들은 나에게 6-7시간 걸리는 수코타이를 갈 것이 아니라 1-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아유타야를 보고 다시 방콕으로 내려와 자신들과 놀다가 태국을 떠나라는 것이다. 그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나에게 수코타이는 보로 부두르, 파간과 더불어 이번 여행의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의 제안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수코타이로 향했다. 방콕에서 수코타이까지는 버스로 대략 6시간이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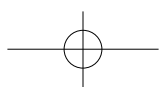
수코타이 유적 지구는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 않았다. 자전거를 타고 하루, 혹은 하루 반나절을 더 돌면 모두 볼 수 있었다. 수코타이는 13세기 람캄행 대왕 시대에 번영했던 수코타이 왕조의 수도이면서 그 자체가 도시국가였다. 수코타이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람캄행을 빼놓을 수 없기에 수코타이 유적 지구에도 람캄행의 동상과 그를 기리기 위한 제단이 세워져 있다. 이곳에 있는 여러 사원과 불상들은 수코타이 양식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특히 시선을 끈 건축물은 왓마하탓(Wat Mahathat)과 왓시춤(Wat Si Chum)이었다. 수코타이 왕실 사원이었던 왓마하탓은 규모 면에서나 건축 양식의 측면에서나 수코타이의 건축물들을 대표하기에 충분했다. 왓시춤은 거대한 좌불상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 부처의 손은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붙여 놓은 금박으로 인해 금색으로 보인다. 얼굴과 손가락이 길쭉하고 허리가 잘록한 이 수코타이 양식의 불상들은 이전에 방콕이나 아유타야에서 보았던 다른 시기의 불상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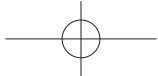
수코타이는 방콕과도, 그리고 아유타야와도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었다. 세계적인 도시인 방콕이 전형적인 대도시의 모습이었고 아유타야 역시 방콕과 가까운 거리로 인해 방콕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다수 방문하여 북적거렸다. 그러나 수코타이는 대단히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였다. 차나 오토바이보다 자전거를 보기가 더 쉬웠고 관광객들로 인해 시끄럽지도 않았다. 내가 2박을 머무른 호스텔이 4인실이었는데 그 기간 내내 내가 머무른 방에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한다. 이토록 조용하고 어찌 보면 무료한 수코타이였지만 그곳의 평화로움과 고즈넉함은 다른 동남아시아의 관광지들을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과 부딪혔던 나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기에 충분했다.



왓마하탓

왓시춤의 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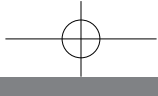


내가 방문했던 동남아시아를 추억하며

나는 수코타이 이후 태국 북부의 치앙마이(Chiang Mai)를 거쳐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여러 친구와 지인들을 만나며 간만에 겨울의 하노이를 맛봤다. 하노이는 언제나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이번 동남아시아 배낭여행은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해주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 달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나 돌이켜 보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다. 사실 여행을 시작하기 전 이 긴 여정을 끝낼 수 있을지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여행 중간에 건강상 문제가 생길까 걱정도 많이 했었다. 그러나 한 달간의 여정을 별 탈 없이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다. 사실 마음은 이번 7, 8월에도 또 배낭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아직도 동남아시아에는 내가 가보지 못한 국가가 다섯 곳이나 된다. 그렇기에 이번 여름과 다음 겨울 두 번에 걸쳐 나머지 다섯 국가를 여행하고 싶었지만, 형편상 여름에는 가지 못하게 되었다. 7, 8월의 살인적인 무더위를 이겨낼 자신이 없기도 하고. 그러나 올해 겨울에는 싱가포르(Singapore), 말레이시아(Malaysia), 라오스(Laos)를 반드시 돌아보리라 다짐한다.

이번에 학과 소식지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발적으로 글을 쓰겠다고 하였다. 내가 동남아시아에서 겪은 여러 경험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학과에서 함께 공부하는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에서 베트남을 비롯한 라오스, 버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는 것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이 갖는 여러 매력과 현지의 저렴한 물가가 관광객들을 동남아시아로 떠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동남아시아를 여행하기에 최적의 시기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 집 한구석에 박혀 있는 배낭을 꺼내 들고 떠나라.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당신의 몸에 가득히 담아올 것이다.



해외통신사

In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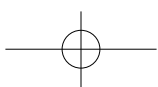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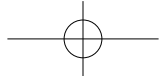
중국 동화대학

글 조율재 (14)

동화대학 후기

해외란 바다 밖을 의미한다.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바다를 건너 새로운 육지로 간다는 것이다. 그것은 두 가지의 심리를 수반한다. 하나는 호기심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다. 과거의 선조들에게 바다란, 두렵고 위험한 곳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도전했다.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강한 호기심과, 지적, 경제적, 정치적 욕구에 의해서다. 현재의 우리들은 하늘로 다닐 수 있게 되면서 바다에 대한 두려움은 다소 내려놓았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과 판이한 언어, 소요되는 비용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은 무시할 수 없다. 요컨대, 시대를 막론하고 호기심과 두려움, 이 두 심리가 양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나도 또한 두 심리가 양존했다. 해외에 대한 호기심이 정말 강했다. 특히 한국사가 아닌 다른 나라의 역사책을 보면 온갖 장소가 등장하는데, 그것을 꼭 직접 보아야만 역사가 이해될 것 같았다. 단순히 글과 사진을 읽고 상상력만으로 추론하는 것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다. 동영상도 보더라도 촉각과 후각, 미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불완전한 경험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기대감과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그러한 한편 반대편의 심리가 나를 점점 강하게 억누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도전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조금 더 안전한, 보수적인, 여유로운 방법을 항상 택하려고 했다. 좋게 말하면, 한 발 한 발 천천히 나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뜻이며, 나쁘게 말하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의미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같은 곳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문제는 도전 정신이었다. 멀리 뛰어야 할 구간에서나, 서둘러야 할 구간에서조차 천천히 있다 보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성장시키려면 과감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 도전의 시작은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인 한국을 떠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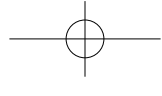
행선지는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 간다면 중국을 가장 가고 싶었다. 지역도 가깝고, 중국사와 중국어도 공부했던 경험이 있었다. 무엇보다 어릴 적부터 『삼국지』와 『초한지』에 많은 매력을 느꼈고 아직도 이야기가 기억날 만큼 많이 읽기도 했다. 또한 땅이 넓을뿐더러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여있는 특성 역시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많은 문화재와 관광지 또한 마찬가지였다. 다만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중국을 가려했던 원래 목표와는 다르게, 졸업을 한 학기 앞 둔 4학년 1학기에 상하이 동화대학으로 가게 되었다.

만약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중국을 갔다면 1년은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중요했던 것은 언어가 아닌 ‘경험’ 그 자체였다. 1학기라도 충실한 시간을 보내면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더군다나 이전까지 해외 경험이 일절 없었기 때문에, 교환학생을 나가는 것 자체도 큰 경험이 될 것 같았다. 나아가 외국에서의 경험들을 양분으로 삼아 나를 더욱 성장시키고 싶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중국으로 출발했으나 시작부터 난관이 많았다. 상하이에는 공항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홍차오(虹桥) 공항, 하나는 푸둥(浦东) 공항이다. 홍차오 공항이 동화대학에 훨씬 가깝지만, 픽업 서비스를 받기 위해 거리가 훨씬 먼 푸둥 공항 행 비행기를 예매했다. 그러나 비행기가 연착되면서 픽업 서비스를 놓쳤고, 공항을 한동안 헤맨 끝에 택시를 타고 1시간이 지나서야 학교에 도착했다. 이미 시간이 늦어서 동화대학 국제처에는 사람이 없었고, 물어 물어 기숙사를 찾아가 겨우 방 배정을 받았다. 중국의 유심카드도 구매하지 않은 상태라 연락할 곳도 없었다.

본래 2인실이지만 룸메이트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라 혼자 다니면서 모든 행정 절차를 해결했다. 그밖에 유심 카드나 생활용품도 혼자 다니면서 구입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점원이 무슨 말을 하는 지도 모르겠고, 행정실에 있는 사람도 한국인이 한 명 뿐이라 급할 때 중국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물론 상하이 복단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준비하는 14학번 최우석 학우가 많이 도와줘서 한시름을 놓을 수는 있었다. 하지만 항상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때 나는 해외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꼈다. 준비가 부족한 자에게 해외는 냉혹한 곳이었다.

그때부터 한 달 정도는 중국어만 했던 것 같다. 생존하기 위한 단어들을 먼저 외웠고, 문법을 떠나 발음을 정확히 하려고 노력했다. 아무리 경험이 우선이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본기는 있어야 했다. 4월이 되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 상하이 전역을 혼자 돌아다녔다. 상하이의 웬만한 유적



지들은 지하철과 버스를 타면 모두 이동 가능했다. 와이탄(外灘), 정안사(靜安寺), 상하이박물관(上海博物館), 상하이도시계획전시관(上海城市规划展示館), 대한민국상하이임시정부, 프랑스조계지, 예원(豫園) 등을 다녔다. 이 문화재들은 인터넷이나 책으로만 보던 곳이라서 감회가 굉장히 새롭고 기뻐다. 현장에서의 상상과 감응은 활자와는 차원이 달랐다. 정신을 놓고 다니면 해가 지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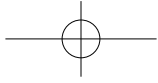
5월부터 6월까지의 상하이 주변의 지역들로 1박 2일이나 2박 3일 여행을 다녔다. 쑤저우(蘇州), 항저우(杭州), 난징(南京) 등을 다니면서, 중국이 정말 넓은 것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 항저우까지 고속철도를 타면 2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런데 한국에서 같은 시간이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고도 남는다. 더 놀라운 것은 중국 전체 지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짧은 거리라는 것이다. 이는 상하이 안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지금껏 나는 정말로 우물 안 개구리였다. 중국도 이렇게 넓은데, 전 세계는 정말로 넓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스스로가 겸손해지는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두려움을 잊게 만드는 내면의 짜릿한 변화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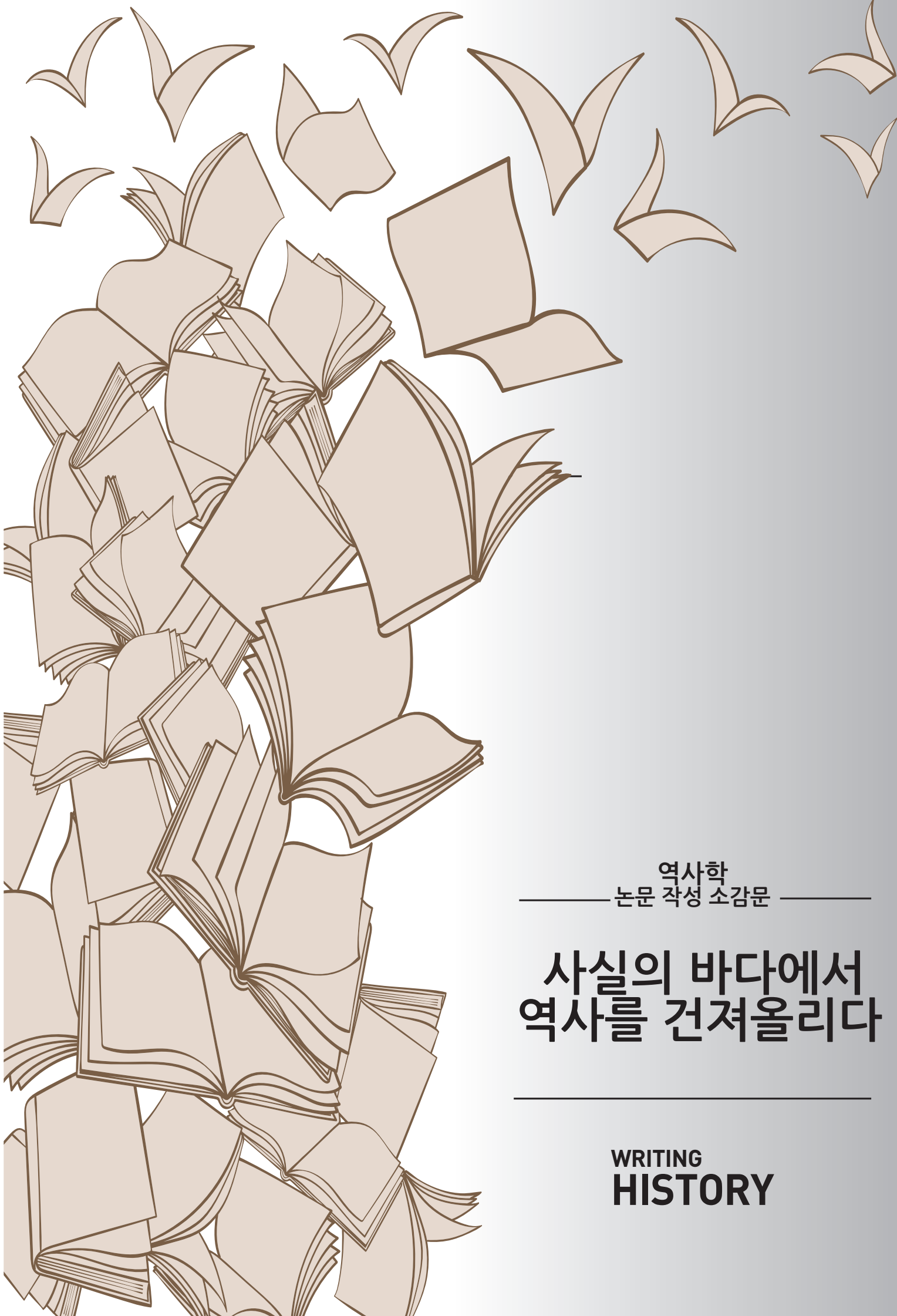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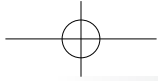
7월에는 기말고사를 마치고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어 어학당을 수료했다. 그리고 4박 5일 정도 베이징 여행을 가게 되었다. 이 여행 계획은 상당히 오래 공을 들였다. 한 국가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중심이자 상징인 수도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더군다나 베이징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도시이자, 역사·문화적 산실이였다. 그런 곳에서 5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을 것만 같았고, 충분히 보지 못하고 돌아가면 후회할 것 같았다. 따라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일정을 짜서 5일간 베이징 구석구석을 다녔다. 물론 그 일정을 전부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돌아와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시간들을 보냈다. 새로운 곳으로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 변수를 이겨낼 용기와 지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시간이었다.

지금 돌아보면 5개월은 정말 짧은 시간이었다. 처음 중국에 입국했을 때 1시간이 정말 길었던 것을 떠올리면 모든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말 많은 일들과 깨달음이 있었고, 그 기억들은 나를 조금씩 성장시키고 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충분한 경험을 했을까? 다시 말해서, 처음 중국을 향했던 목표와 다짐은 이루어진 것일까? 아니, 사실 충분하지 않았다. 여전히 아쉽고, 더 많은 경험을 해야 했다. 좀 더 성숙했다면, 준비되었다면 더 많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 목표는 실패한 것일까? 그건 아니다.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보낸 시간들은 앞으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와 통한다. 나는 해외 경험이 학우들에게 내면의 거대한 변화를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 걸음을 두 걸음, 세 걸음으로 바꿀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무턱대고 제안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내가 겪었던 있는 그대로의 일들과 감정을 전하려 했다. 사실 해외를 갈지 말지, 도전을 할지 말지 개인의 자유다. 다만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고, 호기심을 위해 두려움을 떨쳐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지체하지도, 흔들리지도 말고 도전해보았으면 한다. 그 후에 이 소식지에 자신의 이야기를 실어서, 흔들리고 있는 다른 학우들에게 다시금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





역사학
논문 작성 소감문

사실의 바다에서 역사를 건져올리다

WRITING
HISTORY



마침표와 쉼표

박종범(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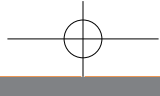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든 늘 시원섭섭하다. 논문을 작성하고 난 뒤에도 시원섭섭하였다. 사실 학기 초만 해도 빨리 논문을 탈고하고 인쇄소에 제본을 맡기면 기분이 좋을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끝낸 뒤에는 후련함 말고도 씁쓸함 역시 가득 남아있었다. 대학생활이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을까, 논문에 대해 아쉬움이 남아있었을까 아님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을까. 이 소감문에서는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과 느낀 점에서 찾은 답과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담아보았다.

군대를 다녀오고 무료한 게 싫어서 다시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하고 교환학생도 다녀오며 남은 대학생활을 보냈다. 물론 어떤 시도들은 조금은 뻘뻘하고 무모하다고 느낄 정도였으나 수많은 선택지에서 그것을 선택한 것에 대한 머뭇거림이나 후회는 없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마침표를 찍어가며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마지막 학기에 와서 내 앞에 있는 졸업과 그 뒤에 있는 텅 빈 공간을 보고 난 뒤에는 멈춰 설 수 밖에 없었다. 마침표만 가득했던 내 대학생활에서 나는 쉼표를 찍고 잠시 고민을 하였다.

그냥 계속 달려온 기세로 논문 수업을 듣고 빨리 대학생활의 마침표를 찍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까 아님 잠깐 쉼표를 찍고 새로운 시작을 조금 미루어야 할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을 꼭 택해야만 했다. 겨울 방학 동안 계속된 고민은 결국 수강 신청하는 날이 되어서야 결론이 났다. 조금 우습게도 고민하였던 긴 시간에 비해 아주 간단하게 정규 학기에 졸업하자는 답을 내리고 논문 수업을 신청하였다.

사실 호기롭게 신청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나는 논문작성에 대한 준비가 덜되어있었다. 그 냥 긴 정체구간을 참을 수 없어서 무작정 앞으로 나간 터라 부족한 점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제일 안타깝고 부끄러웠던 것은 개강할 때까지 나만의 주제를 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아무런 시도를 안 해본 것은 아니다. 수강 신청하는 날부터 개강하는 날까지 내 머릿속을 지나가는 다양한 주제들에게 찾아가 구애를 해보았다. 하지만 한국사부터 세계사까지,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넓은 시·공간의 범위를 돌아다녀보아도 내 주제를 고르지 못했다. 생각하는 주제마다 깊이가 없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대학생활의 마침표라 생각한 졸업논문에 대한 내 미련과 집착이 과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아직도 처음부터 마음을 비우고 나와 주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다른 학우들은 논문 작성을 할 때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후회스러운 시간이 지난 뒤에 고른 주제는 가장 처음 떠올렸던 대외 관계사였다. 4월 한 달 동안 잠시 학교와 논문에서 벗어나 교생실습에 갔을 때였다. 모순적이게도 그토록 어려웠던 논문 주제 선정은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이루어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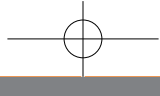
다. 잠시 쉬는 시간에 우연히 돌아본 6년 반의 대학생활에서 나는 대외 관계사에 관심을 많이 보였던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몇 십 세기 동안 주변 국가와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협력하며 질서를 구축하고 생존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에 흥미를 느껴서 나름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수업도 들어보던 과거의 나를 보았다. 그 후로 마침내 『계해약조를 통해 보는 조선 세종의 교린정책의 방향성』을 논문 주제로 삼을 수 있었다.

조선은 건국된 후로 계속 주변 정세를 주시하고 주변 국가들의 특성에 맞게 각기 다른 외교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유연했던 조선의 움직임은 사대교린정책이라고 하였다. 나는 사대교린 정책이 독자적인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조선의 자주적인 움직임에 대한 증거로, 세종 대에 절정에 달하였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이에 대해서 세종이 왜구의 소굴로 인식되던 대마도의 도주와 맺은 계해약조를 예시로 제시함으로써 이 사건이 조선과 왜구 양측에 미친 영향, 그 의의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교린정책의 방향성을 논해보고 싶었다.

물론 주제를 선택한 뒤로 논문 작성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다행히 비교적 현대와 가까운 조선시대인데다가 한국과 인접한 지역과의 교류사여서 그런지 관련된 논문, 사료, 서적 등은 많았다. 오히려 그 많은 참고문헌 중에서 논문 작성에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가려낼지 고민할 정도였다. 하지만 문제는 논문 주제에서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답을 풀어낼 때 생겼다. 문제점들에서 몇 가지는 논문 작성에 큰 걸림돌이 되었고 이를 빼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했다.

먼저 사료를 고르고 해석할 때 외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 호기롭게 관심 있던 소재였던 일본과의 교류사를 주제로 고른 것은 좋았다. 좋아하는 주제이기에 애정을 갖고 글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사료에 접근하여 일본 측의 관점 역시 알아야했고 내 일본어 실력은 썩 좋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다. 주제를 선정할 때 흥미만을 보고 내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한문 지식으로도 강독이 가능하겠지 하고 안일하게 도전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울 정도로 사료를 해석하는 데 많이 제한이 있었다. 최대한 부족한 부분은 요즘 발달된 번역기를 활용하였지만 일본어 능력이 조금 더 좋았다면 더 많은 사료를 더 짧은 시간에 읽고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많이 아쉬웠다. 만약 정말 외국어나 교류사에 관련된 주제로 논문을 쓰고 싶다면 더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논문을 위해서라도 그와 관련된 외국어를 잘 익혀두었으면 좋을 것이다.

다음 문제는 글을 전개할 때 발견한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시선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 당장 7,80년대의 사람들만 봐도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현재의 사람들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최근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마저 현재의 사람들과 다른데 더 먼 과거의 사람들은 더욱 더 달랐을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과거 사람들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관점으로 사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사료 내용과 그에 대한 선행연구 속 주장들만 수



용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다보니 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내 주장에 대한 확신과 애정이 점점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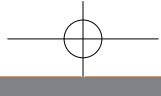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는 대마도 답사를 택하였다. 논문으로 과열된 머리를 식히고자 잠시 쉼표를 찍고 계획한 답사는 새로운 관점을 내게 선사하였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는 해외 지역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대마도는 도착한 첫날부터 머리가 지끈거릴 충격을 주었다. 남부의 큰 항구 마을인 이즈하라에서 조금 벗어나자 수많은 산과 언덕만 보이는 곳, 논이나 밭은 둘째 치고 평지마저 찾아보기 힘든 곳이 바로 대마도였다. 더구나 이런 험난한 지형과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때문인지 교통편도 좋지 않아 목적지에 내릴 때마다 반강제로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러야만 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은 오히려 논문 주제에 대한 확신과 깊은 이해를 도왔다. 대마도의 긴 버스 배차 시간은 내게 섬을 여유롭게 둘러볼 기회를 주었다. 가볍게 유적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대마도의 자연환경과 그 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을 관찰하며 대마도란 곳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다. 이 경험으로 나는 대마도란 곳에 왜 왜구들이 들끓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왜 상업의 형태로 조선이 제시한 질서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내 논문의 주장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본다면 논문을 위한 대마도 답사는 정말 뜻깊었다고 생각한다.

이후로도 윤승준 교수님과 잦은 소통이 큰 도움이 되었다. 논문작성법 수업의 지도교수님이셨던 교수님께서 강의시간에 설명해주시는 논문 작성법이나 글을 다듬는 팁을 듣고 나에게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다보니 투박했던 논문은 예전보다 간결하고 정교해졌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열정적이셨던 교수님 덕분에 강의 시간 외에도 교수님과의 짧은 대화나 면담을 통해 논문의 전개방식이나 구성요소들을 다시 되짚어볼 기회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 놓치고 있던 논문의 허점이나 비논리적이었던 근거를 고쳐나가거나 보완하며 논문 주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이렇게 나의 피, 땀, 눈물, 후회와 희열이 뒤섞였던 논문 작성에 마침표를 찍었다. 비록 다시 볼 때마다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부끄럽고 더 잘 써보고 싶다는 미련이 들게 만드는데, 학부 논문 한 편을 마무리 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앞에서 설명한 것 말고도 새롭게 사회에 나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 내 대학생활을 되짚고 정리할 수 있었던 기회와 내 열정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안 풀릴수록 마음을 비우고 꾸준히 여유롭게 목표에 도전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장을 얻을 수 있게 해준 논문이었기에 마무리 지을 때에도 섭섭함이 남아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말했던 의문에 대한 답을 얻었으니 이 글에도 마침표를 찍고자 한다. 대학생활의 마지막을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내게 마침표이자 쉼표였던 논문을 보내주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 글을 보는 학우에게도 짧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끝으로 한 학기 동안 같이 고생을 한



논문작성법 수강생 학우들에게 고생했다는 말과 많은 도움과 희망을 주신 윤승준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글을 마친다.





왜관 답사 주제 선정과 후기

조현철(13)

사람은 끊임없이 관계를 형성한다. 국가관계도 최소단위인 개인의 관계 연장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렇기에 역사 공부에 있어서 외교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이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문 주제를 선정했으면 좋았겠지만 추상적인 주제를 택했었다. 처음에는 일본 근세(近世)교체기 조선과의 교류사로 연구 범위와 대상이 모호했다. 명치유신의 결과로 급격하게 바뀌는 조선과의 관계와 운요호사건, 강화도 조약으로 이어지는 급격한 외교 변화를 면밀히 보고 싶었다. 하지만 16주라는 짧은 시간 내에 원하던 주제의 내용을 원사료(原史料)를 바탕으로 전개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했다. 이에 고민하던 중에 당시 수강하던 일본사 특강의 강의 내용이 큰 도움이 되었다. 강의 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의 전국제패이후 조선 침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때 교수님의 논지였던 국제전쟁의 관점에서 임진왜란을 다루었다. 그러면서 기존에 다루고 싶었던 일본과의 교류사를 다루면서도 당장에 현실인 짧은 기간에 원사료를 접할 수 있는 주제로서 왜관을 택하였다.

이전부터 교류사에 대해 관심을 가졌었다. 본격적으로 흥미를 느낀 것은 2018년도의 공모전에서 일본 방문 이후부터였다. 대한민국의 외교부와 일본의 외무성이 공동주관하는 방일대표단 활동의 일환으로 9박 10일간 일본을 학기 중에 다녀왔었다. 이때 일본의 대학생들과 만나면서 민간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에 이전 관심사였던 메이지유신(明治維新)과 연결하는 주제들에 흥미를 가졌다.

왜관은 현대의 외교적 관점에서 보면 공공외교와 민간외교가 통합된 교류의 공간이었다. 또한 서울의 동평관(東平館)이 폐쇄된 이후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공간에 대해 명확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답사가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답사경로를 초기에는 예전의 항로를 따라감으로서 양국을 왕래하던 이들의 감정을 공감하려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의 왜관을 답사하고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쓰시마(對馬島)의 히타카츠(比田勝)항을 경유해서 후쿠오카(福岡)의 하카타(博多)항구로 경로를 결정했다. 하지만 학기 중에 대마도를 경유하여 후쿠오카를 가는 일정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했다. 또한 당시 5월의 화창한 날씨로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표는 전부 매진이었다. 그래서 우선 부산으로 가서 현장에 잔여 배편을 확인하여 답사경로를 재구성하는 쪽으로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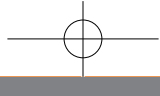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기차역에서 부산항으로 향하여 배편을 확인했으나 쓰시마는 물론 후쿠오카행 배편이 전부 매진이었다. 그래서 숙소를 어플로 예약하고 답사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했다. 초량왜관 터가 있는 용두산 공원만 빠르게 보는 일정에서 초량왜관이 있었던 남포역 인근 전반과 재판가(裁判家), 관수가(館守家), 동향사(東向寺) 등 왜관의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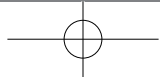
성 건물들의 옛 터를 면밀히 찾아보는 답사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러한 답사 계획 수정에는 군대에서 같이 복무하였던 동아대 사학과 대학원생들의 도움이 컸다. 현재는 재개발로 대부분이 옛 모습을 잃었기에 이들의 도움없이 외지인의 입장에서 일일이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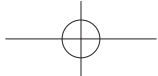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된 왜관 답사는 예상보다 힘들었다. 전날보다 더운 날씨와 친구들이 알려준 예전 기록에서 많은 부분이 변해있었다. 도시 개발이 진행되어 그나마 관수가를 개조하여 남아있던 한식집도 숙박업소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쉬운 마음을 안고서 용두산 공원일대를 탐방하던 중에 문화해설사 분을 만났다.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왜관과 관련하여 민간의 부산초량왜관연구회와 왜관 문화재의 보존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저녁까지 골목들을 돌아다니며 문화해설사분이 주신 2013년도에 진행된 왜관 터의 기록들과 대조하며 용두산 일대를 돌아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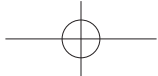
논문답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존의 현 주소를 알게 되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문화재 보존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홍보가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보조와 보상금, 지원 법령의 부족으로 예상보다 많은 문화재들이 개발로 인해 소멸되고 있다. 특히 일본과 관련된 문화재의 경우 가치를 따지는 이성보다는 감정이 우선시되어 사라지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서 어떠한 관계를 성립했는지에 대해 돌아볼 때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돌아보기 위한 흔적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WRITING HISTORY







Instagram



이승욱(11)
경기일보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안녕하세요. 사학과 11학번 이승욱입니다. 글을 부탁하는 선배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는 경기·인천 소식을 전하는 지방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대기업에 취직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만한 ‘메이저 신문사’에 취직한 것도 아닙니다.

처음 글을 부탁받았을 때는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 까라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특히 제가 사학과에서 생활할 때와 지금의 대학 생활의 간극 사이에서 저의 조언이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글은 제가 사학과 생활을 하면서 후회한 것을 풀어내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졸업생의 푸념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너무 일찍 미래에 대해 단정한 점

제가 대학 생활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미래 진로에 대해 너무 빨리 단정 지은 것입니다. 물론 제가 대학교 1학년부터 기자의 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1학년 때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제가 생각한 진로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떤 한 직종에는 취직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직종에 대해서는 자세히 풀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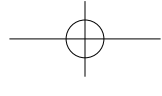
사실 저는 해당 직종을 무시했습니다. ‘영혼이 없다’, ‘수동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등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해당 직종은 수동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능동적으로 아이템을 발굴하고, 주변 환경을 예민하게 포착합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가진 편견으로 해당 직종과 멀어져갔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과거에 해당 직종에는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말 때문에 오히려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나아갔습니다. 기자가 된 지금은 후회하고 있구요.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 술을 잘못 배운 것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잘못 배운 분들은 너무나 잘못 배워 수많은 술자리 실수를 저질렀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다음 날 어제의 나를 원망하기도 했을 것이고, 심한 친구는 사학과 생활에서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술을 대학교에서 처음 마셨습니다. 그때 제 동기 중에는 이미 고등학교 때 술을 접한 친구 등이 있었습니다. 처음 간 술자리에서 그 친구들처럼 술을 마시니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또 주량을 모르고 취할 때까지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제 주위에 마음씨 좋은 동기, 선배가 있어서 사학과에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술을 잘못 배웠죠. 여러분들은 술을 못 하는 지인이 있으면 부디 강요하지 않는 아름다운 문화 시민이 되길 바랍니다.

3. 1,2학년 때 공부를 손에서 놓은 것

이런 말을 하긴 뭐하지만 저는 1,2학년 때 공부를 안 했습니다. 특히 2학년 1학기 때 성적은 처참할 정도입니다. 공부를 죽을 듯이 열심히 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중간은 가야 했던 것 아닌가 하는 후회는 듭니다. 3,4학년 때 열심히 해도 다른 동기들을 따라잡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1,2학년부터 공부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대학 생활을 하면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공부와 일, 노는 것을 동시에 잘하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4. 학과 공부가 아닌 다른 공부하기

이번 항목은 사실 제가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항목이니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1개는 괜찮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1학년 시절 사학과 공부보다 다른 공부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화해서 풀어보면 정치, 경제 등의 주제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를 좀 더 왼쪽 입장에서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시의 생각들을 많이 수정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당시 생각했던 ‘이상’은 여전히 제가 기자 생활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당시에서 조금씩 수정했지만, 당시와 같은 ‘이상’을 위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왼쪽에서 이 같은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학과 공부 외에도 다른 공부를 통해 거칠게나마 제 삶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도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중에 삶을 살아갈 때 지향점이 되는 이정표를 세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제 대학 생활의 후회들이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에게 조언이 아닌 졸업자의 칭얼댐처럼 느껴지는 글이 됐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런 후회를 하고 있구나’ 정도로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인간관계 등으로 어려운 대학 생활이지만 그 속에서도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즐거웠던 대학 생활이라고 추억되면 여러분의 대학 생활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처럼 후회하는 것이 많아도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의 기억들이 싫지는 않습니다. 그 기억이 꽤 재밌기도 합니다.

대학 생활을 응원하며 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DITOR

HISTORIAN 1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편집위원으로서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지난 호에도 말했지만 HISTORIAN은 편집이라곤 1도 모르던 저에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었으므로 굉장히 고맙고 소중합니다. 학과지 편집을 하기 전에 저는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으나, HISTORIAN을 편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디자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좋은 경험을 다른 학우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편집위원의 기회는 언제든지 학우분들에게 열려있으니깐요 :) 마지막으로 매 학과지 편집과 발행에 도움 주시는 (주)도약 심병민 선배님과 유수연 실장님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12호에서도 더욱 풍성한 소식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유운이(17)-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볍게 보기만 했던 학과 소식지의 편집을 처음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인이라 인디자인을 다루는 법에 서툴렀지만, 벌써 몇 번이나 편집위원을 했던 숙련자 윤이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부 학생회장으로써 학교생활을 했던지라, 편집을 하면서 지난 학기를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학과 학우 여러분들도 학과 소식지에 꽤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이 다 함께 만들어낸 소식지이니 재밌고 소중하게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다음 호에서는 더 많은 학우들이 소식지 편집에 도전하여 뜻깊은 경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빈(16)-

이번에 처음으로 사학과 소식지 HISTORIAN 11호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과지 편집이 처음일 뿐만 아니라 편집 프로그램인 인디자인을 한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어 편집에 큰 어려움이 있을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교님과 다른 편집위원분들의 도움 덕분에 편집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편집을 하면서 학과지가 완성되기까지 여러 사람의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방면으로 우리 사학과 학우님들, 선배님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사학과가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소중한 이번 11호 잘 읽어주시고 다음 12호에도 재밌는 내용이 많이 실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혁(18)-

안녕하세요 편집을 맡았던 하재운입니다. 처음 학과 소식지를 편집해보겠냐고 제안 받았을 때, 저는 편집이란 것이 꼼꼼함과, 여러 기술들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와는 맞지 않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전해보지 않으면 영영 모르는 분야, 내가 못하는 일이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편집을 하게 됐습니다.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사학과와 한 학기간의 소식이 모두 제 손을 거쳐 간다는 점이 저를 설레게 하기도 하고, 책임감이 생기게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편집자 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또 제가 기대하고, 설레게 했던 부분이 충족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사학과와 많은 구성원 여러분들이 학과 소식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운(18)-



조교 한 마디

안녕하세요, 사학과 조교 이동륜입니다. 다들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나름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방학은 유난히 바빴던 지라 '이제 숨 좀 돌리겠구나' 하니 벌써 개강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느덧 세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학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사학과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행정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더 나은 학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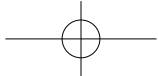
언제나 그렇듯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학점 비율 상한도 5%씩 늘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아마도 집에 성적표가 날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온라인으로 조회하도록 바뀔 것이고요. 종이도 아끼고, 반송되어 오는 성적표들을 보면 난처했는데 저로서도(?) 다행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도, 항상 학교 공지사항을 예의 주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즐거웠던 강원도 답사의 뒤를 잇는 다음 학기 답사는 무려 중국 답사입니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학생 때 단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가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아쉬웠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해외 답사용으로 사용할 교과목을 신설하였으니, 이미 다른 답사 과목을 들어 해외 답사 과목을 듣지 못하는 경우는 이번에는 없을 것입니다.

소식지를 편집하느라 고생한 이수빈, 정우혁, 하재윤 그리고 유윤이 편집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학과에서 각각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방학에도 바쁠 텐데도 소식지를 위해, 더운 날 학교를 오기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회의하며 열심히 소식지를 편집해주어 또 이렇게 소식지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을 무사히 잘 보내고, 또 폭 쉰 다음, 학교에서 웃으며 만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학과 조교
이동륜



학과 소식

- 해외 답사 신규 교과목 ‘글로벌역사문화탐구’ 신설(2019-2 개설 예정)

2학기에는 중국 북경으로 3박 4일 학술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말~11월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9주차에 진행될 예정으로, 해당 기간에 중간 시험 등이 겹치지 않도록 답사 참여자들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권 사본 제출 등 필요한 행정 처리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학 제도

<성적우수 장학금>

학칙 및 학과 내규 등에 의하여 우수한 학업 성취를 보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학기별 지급 인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 대상

가. 정규등록생

나. 수강 포기하지 않은 자

다. 1~3학년 : 16학점,

4학년(7차 학기) :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라. 평점 4.0 이상

(8차 학기자, 전과 이후 첫 학기인 자,

다른 장학금을 전액 이상으로 받는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선발 기준

가. 학년별 안배 고려

나. 전공학점 9학점 이상(※ 1학년 제외)

(적합자 없을 경우 6학점 이상도 고려,

단 우선순위 밀릴 수 있음)

다. 전공필수 적시 이수 여부 확인

- 1학년 : 1학기[역사학입문 + 한문1],

2학기[한국사입문 + 한문2]

- 2학년 : 동양어 원전읽기

- 3학년 : 서양어 원전읽기, 세계사입문

※ 위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래도 선발이 어려울 경우 아래 기준을 따른다.

라. 동점자 처리 기준 : 평점평균 → 전공취득학점 →

총 취득학점

마. 그래도 선발이 어려울 시 학과장 재량 선발